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 효율적인 서예 지도 방안 연구

- 초등학교 6학년을 중심으로 -

Researches of Effective Guidance on Calligraphy

- Based on Sixth Grade Elementary School Students

제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미술교육전공

이 귀 환

2008년 1월



석사학위논문

# 효율적인 서예 지도 방안 연구

- 초등학교 6학년을 중심으로 -

Researches of Effective Guidance on Calligraphy

- Based on Sixth Grade Elementary School Students

제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미술교육전공

이 귀 환

2008년 1월



석사학위논문

## 효율적인 서예 지도 방안 연구

- 초등학교 6학년을 중심으로 -

Researches of Effective Guidance on Calligraphy

- Based on Sixth Grade Elementary School Students

지도교수 오 재 환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제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미술교육전공

이 귀 환

2008년 1월

이귀환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제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2008년 1월

# 목 차

국문초록.....	i
I. 서론.....	1
II. 이론적 배경.....	4
1. 초등학교 미술과 서예 지도 내용 분석.....	4
2. 6학년 서예 교육 내용 및 서체 분석.....	11
3. 서예학습에 필요한 기초 지식.....	16
4. 궁체의 개념과 특성.....	24
5. 궁체의 지도 방법.....	28
III. 연구의 기초 조사 및 분석.....	34
1. 학생의 실태 조사.....	34
2. 대상 및 기간.....	42
3. 실천 과제.....	42
4. 실천 계획.....	43
IV. 연구의 실제.....	44
1. 효율적인 지도 방법 구안 적용.....	44
2. 다양한 표현 활동 전개.....	51
V. 결과 분석.....	54
1. 검증 내용 및 방법.....	54
2. 검증 결과 분석.....	54
VI. 결론 및 제언.....	57
참고문헌.....	61
Abstract.....	61
부록.....	63



## 표 목 차

<표Ⅱ-1> 각 학년별 서예 지도 내용 및 시간.....	10
<표Ⅱ-2> 6학년 미술 교과서 서예 단원 분석표.....	11
<표Ⅱ-3> 미술과와 서예영역 배정시간.....	12
<표Ⅱ-4> 교과서에 나오는 서체의 날자.....	15
<표Ⅱ-5> 교과서에 나오는 서체 분석표.....	15
<표Ⅱ-6> 서예 용구의 선택 및 보관법.....	16
<표Ⅲ-1> 좋아하는 교과.....	33
<표Ⅲ-2> 좋아하는 미술과 영역.....	33
<표Ⅲ-3> 서예수업에 대한 호감도.....	34
<표Ⅲ-4> 서예를 좋아하는 이유.....	34
<표Ⅲ-5> 서예를 싫어하는 이유.....	34
<표Ⅲ-6> 서예 학습의 좋은 점.....	35
<표Ⅲ-7> 서예를 배울 수 있는 기회.....	35
<표Ⅲ-8> 서예 작품 감상 기회와 경험.....	35
<표Ⅲ-9> 서예 학습에서 어려운 점.....	36
<표Ⅲ-10> 바라는 서예 학습 방법.....	36
<표Ⅲ-11> 서예 학습에 대한 자신감.....	36
<표Ⅲ-12> 붓의 품질 및 보관 상태.....	37
<표Ⅲ-13> 서예 용구의 중요성 인식 정도.....	37
<표Ⅲ-14> 서예 용구 관리에 대한 희망.....	37
<표Ⅲ-15> 용구 사용 방법 실태.....	38
<표Ⅲ-16> 서예 기초 학습 능력 실태.....	38
<표Ⅲ-17> 실천 절차.....	41
<표Ⅲ-18> 실천 계획.....	42
<표Ⅳ-1> 차시별 지도 계획.....	43
<표Ⅳ-2> 교수·학습과정안 예시.....	47
<표Ⅴ-1> 흥미 태도면.....	52

<표 V-2> 궁체의 서사 능력면.....	52
<표 V-3> 서예 학습에 대한 흥미.....	52
<표 V-4> 서예 학습에 대한 자신감.....	53
<표 V-5> 기본 태도 평가.....	53
<표 V-6> 서예 작품 평가.....	54
<표 V-7> 궁체의 이해도 평가.....	54
<표 V-8> 감상 능력의 평가.....	54

## 그림 목 차

<그림 II-1> 궁체‘머루다래’.....	12
<그림 II-2> 궁체작품 ‘파란하늘’.....	13
<그림 II-3> 궁체작품 ‘인사를 잘하자’.....	14
<그림 II-4> 앗아쓰기.....	17
<그림 II-5> 쌍구법.....	17
<그림 II-6> 단구법.....	18
<그림 II-7> 현완법.....	18
<그림 II-8> 남계연단 권지삼.....	25
<그림 II-9> 낙성비룡 권지일.....	26
<그림 II-10> 판본체 ‘나무’와 궁체 ‘나무의 비교’.....	27
<그림 II-11> 궁체의 기본 획.....	28
<그림 II-12> 궁체의 기본 점.....	28
<그림 II-13> 판서체와 궁서체의 분석.....	28
<그림 II-14> 판본체와 궁체의 비교 .....	29
<그림 II-15> 모음에서의 빼침점과 수평점.....	29
<그림 II-16> ‘ㄷ’에서의 세로획의 위치.....	29
<그림 II-17> ‘ㄹ’ ‘ㄷ’ ‘ㄹ’의 쓰기.....	30
<그림 II-18> ‘ㄹ’과 ‘ㅎ’ 쓰기.....	30
<그림 II-19> ‘ㄴ’ 쓰기.....	30
<그림 II-20> 자형과 획의 변화.....	31
<그림 II-21> ‘인사를 잘하자’.....	31
<그림 II-22> ‘ㅇ’ 쓰기.....	32
<그림 II-23> ‘ㅈ’, ‘ㅊ’ 쓰기.....	32
<그림 II-24> 자음과 모음의 변화.....	32
<그림 IV-1> 학습지 및 연습지.....	48
<그림 IV-2> 민화그리기그림.....	53
<그림 IV-3> 수묵화 그리기.....	53

<국문초록>

효율적인 서예 지도 방안 연구 -초등학교 6학년을 중심으로-

이 귀 환

제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미술교육 전공

지도교수 오 재 환

‘붓글씨로 나타내기’ 즉 서예 표현 활동은 미술과의 다른 표현 방법과는 달리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문자를 소재로 하여 문자 그 자체의 조형적 구조를 바탕으로 조화와 균형, 변화와 통일의 조형미를 점과 선으로 표현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우리 고유의 언어인 한글을 소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랜 세월을 걸쳐 다듬어진 민족적 미의식이 반영된 바람직한 정서 교육의 한 방법이다.

서예교육은 서(書)를 통하여 예술을 이해하려는 것 이외에도 인성 교육의 일환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고 우리의 전통과 예술을 이해하고 계승하는데 큰 몫을 해낼 수 있는 분야이다. 그럼에도 학교의 교육 현장에서는 디지털 영상 세대의 영향, 서예 용구를 갖추는 데 따른 부담, 환경적인 요소, 가르치는 교사와 시간의 부족함 등 여러 이유로 교사와 학생들로부터 관심과 흥미를 잃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하여 초등학교 6학년 미술 교과 중 서예 학습 내용을 살펴보고 서예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높이면서 제시된 서체에 한해서라도 필법을 소화하여 쓸 수 있도록 지도하는 방안을 찾는 것에 그 목적을 두었다.

연구 목적의 달성을 위해 문헌 연구를 통해 제7차 교육과정에서의 초등 6학년 서예 교육에 대한 내용과 6학년에서 다루게 되어 있는 궁체의 개념과 제시되어 있는 서체에 대한 지도 방법을 탐색하고, 6학년 학생들의 서

예 학습에 대한 기초실태를 분석하였다. 또한 서예 학습에 대한 흥미를 높이기 위해 서예와 관련된 표현활동을 전개하고 궁체의 효율적인 지도방법을 구안, 적용하였다.

궁체의 효율적인 지도를 위해 먼저 교과서의 서체를 분석하여 기본 획과 점, 날자들의 필법을 익힌 후, 서체를 쓰게 하는 과정으로 지도했으며 그 과정에서 임서에 필요한 학습지를 제작하여 필법이나 자형을 익힐 수 있게 하였다.

다음으로 서예 학습에 대한 흥미를 높이기 위해 서예와 관련된 표현 활동으로 수묵화 그리기를 이용하여 부채에 그림을 그린다든지, 판화의 한 분야에서 낙관 도장 만들기 활동을 해 본다. 글씨 쓰기와 수묵화를 그리고 난 후 자신의 낙관을 찍어 보는 활동을 통해서 붓으로 표현하는 활동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켜 봄으로서 일상생활에 요긴하게 응용할 수 있는 분야라는 인식을 심어주었다. 그 결과 학생들에게 붓으로 표현하는 활동에 대한 관심을 높여주고 서예의 실용적인 면을 부각시켜 줌으로써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일깨울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정리해 보면 학생들에게 붓과 먹을 가까이 하는 기회를 자주 제공해 주고 아울러 서예의 실용적인 면, 일상에 이용될 수 있는 면을 일깨워 주는 것은 우리의 전통 문화에 대한 관심 뿐 아니라 서예 영역에 대한 관심까지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 I. 서론

붓글씨는 붓의 부드러운 털이 작은 움직임에도 그 변화가 민감하기 때문에 마음을 가다듬고 정신을 집중하여 써야 한다. 특히 먹과 종이의 색으로만 표현되는 단순한 색채의 사용은 모든 색채의 번잡함에서 벗어나 추상의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더욱 더 자신의 내면세계를 표현하게 할 수 있다.<sup>1)</sup>

미술과의 표현 영역의 일부인 '붓글씨로 나타내기' 즉 서예 표현 활동은 미술과의 다른 표현 방법과는 달리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문자를 소재로 하여 문자 그 자체의 조형적 구조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조화와 균형, 변화와 통일의 조형미를 점과 선으로 표현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우리 고유의 언어인 한글을 소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랜 세월에 걸쳐 다듬어진 민족적 미의식이 반영된 바람직한 정서 교육의 한 방법이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미술 교과 교육은 다양한 미술 활동을 통하여 주변 세계의 아름다움을 느끼며 향유할 수 있는 심미적인 태도와 상상력, 창의성, 비판적인 사고력을 길러 주고, 아울러 미술 문화를 이해하며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전인적 인간을 육성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sup>2)</sup> 고 하였으며 미술과의 성격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미술과 교육은 주변 세계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미적 감수성을 길러 주며, 상상력과 창의력을 계발하고 비판적인 사고 능력과 미술 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전인적 인간을 육성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미술은 생각이나 느낌을 조형 활동을 통하여 창조적으로 발전시켜 나아가는 예술로서, 그 시대의 문화를 기록하고 반영하는 기능과 역할을 지닌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술 문화를 통해서 과거와 현재를 이해할 수 있으며, 나아가 문화의 창조와 발전에 공헌할 수 있다.'<sup>3)</sup>

서예교육은 서(書)를 통하여 예술을 이해하려는 것 이외에도 인성 교육의 일환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고 우리의 전통과 예술을 이해하

1) 제주도교육과학연구원, 특기·적성 교육 지도 자료 서예(초급·중급) 2003 p3-4

2) 교육인적자원부, 초등학교 교사용지도서 미술 6학년, 2006 p. 6.

3) 교육인적자원부, 초등학교 교사용지도서 미술 6학년, 2006 p. 6.

고 계승하는데 큰 몫을 해낼 수 있는 분야이다. 그럼에도 학교의 교육 현장에서는 교사와 학생들로부터 관심과 흥미를 잃고 있다. 서예가 점점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게 되는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디지털 영상 세대의 영향이다. 오늘날 사람들은 디지털 영상 세대의 영향으로 스스로 몸을 움직여 표현하는 일을 기피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텔레비전을 보는 일도 리모컨에서 몇 개의 키를 누르면 원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으며, 컴퓨터의 키보드에서 필요한 키를 누르면 힘들여 연필을 쥐고 글을 쓰지 않아도 원하는 내용의 글을 원하는 글씨체로 고르게 쓸 수 있다. 게다가 디지털 영상은 그 색채가 화려하고 화면의 움직임이 변화무쌍할 뿐 아니라 소리까지 다양하여 호기심을 자극하고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들인다. 반면 서예는 늘 무채색이면서 단조롭고, 다루어야 할 도구는 그 방법이 까다롭기까지 한테다 잘 못 다루면 옷이나 손 등 주변이 더러워질 우려가 많다.

둘째, 서예 용구를 갖추는 데 따른 부담이다. 그나마 활용도가 높으면 갖추는데 망설임이 덜하겠지만 일년에 한 단원 몇 차시에 불과한 것으로는 경제적인 부담감이 크게 느껴지고 사용 후의 관리 소홀로 해마다 구입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이유로 대다수의 어린이가 갖게 되는 서예 용구는 그 품질이 많이 떨어져 원하고자 하는 것을 제대로 표현하기 어렵게 하고 이것은 서예에 대한 관심을 더욱 약화시키고 다시는 서예를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까지 하게 만드는 요소가 되기도 한다.

셋째, 환경적인 요소를 살펴볼 수 있다. 물리적인 환경요소인 교실 환경을 먼저 살펴보면, 서예실이 설치되어 있는 학교는 무방하나 대다수의 학교 교실에서는 서예의 특성상 물을 사용해야 함에도 수도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사용에 번거로움을 느끼게 한다. 게다가 사용하고 난 먹물의 처리와 붓을 빨고 나서의 뒤처리 등에 있어 번거로움이 크다.

넷째, 가르치는 교사의 서사능력과 시간의 부족함을 들 수 있다. 서예 교육은 이론만이 아니라 기능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가르치는 교사가 지닌 서사 능력과 자신감, 경험이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 특히 초등학생의 경우 크게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다. 게다가 미술과 서예 영역 배당 시간이 크

게 줄어든 것도 한 몫을 하고 있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서예 교육이 시작되어 6학년까지의 과정을 배웠다 하더라도 한 해에 한 단원의 학습에 불과한 서예는 충분히 소화되지 못하여 긍정적인 여러 교육적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서예 학습을 그리 좋아하지 않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하여 초등학교 6학년 미술 교과 중 서예 학습 내용을 살펴보고 서예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높이면서 제시된 서체에 한해서라도 필법을 소화하여 쓸 수 있도록 지도하는 방안을 찾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연구 목적의 달성을 위해 문헌 연구를 통해 제7차 교육과정에서의 초등 6학년 서예 교육에 대한 내용과 6학년에서 다루게 되어 있는 궁체의 개념과 제시되어 있는 서체에 대한 지도 방법을 탐색하고, 6학년 학생들의 서예 학습에 대한 기초실태를 분석하였다. 서예 학습에 대한 흥미를 높이기 위해 서예와 관련된 표현활동을 전개하고 궁체의 효율적인 지도방법을 구안, 적용하였다.

본 연구는 연구자가 근무하는 제주도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지도 결과는 비교 집단을 두지 않고 전후비교에 한하며 서예 학습은 미술과 교육과정에 주어진 시간만 운영하였으며 기타 필요한 활동은 미술과의 다른 영역을 지도할 때나 재량 시간과 특활(계발활동)시간을 일부 활용하였다.



## Ⅱ. 이론적 배경

### 1. 초등학교 미술과 서예 지도 내용 분석

초등학교 미술과 교사용 지도서(7차 교육과정)를 참고로 각 학년별 서예 지도 내용을 분석해 보면 3학년 과정에서는 붓의 성질 알아보기 2시간·판본체로 쓰기 6시간(2가지 서체), 4학년은 판본체 쓰기 8시간(5가지 서체), 5학년에서는 판본체·궁체·낙관 쓰기 등 8시간(4가지 서체), 6학년은 궁체 쓰기 6시간(3가지 서체)로 지도하게 되어 있어 궁체 쓰기는 5·6학년에서 총 10시간이다. 따라서 3·4학년은 판본체를 중심으로 5학년은 판본체와 궁체를, 6학년은 궁체를 중심으로 학습하게 된다. 또 초등학교에서의 궁체는 정자를 중심으로 학습하도록 제시되어 있다.

#### 가. 3학년

##### 1) 단원 개관

##### 가) 붓의 성질 (7단원)

이 단원은 붓글씨를 처음으로 접하는 3학년 어린이들이 익혀야 할 붓글씨의 기초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붓글씨에 사용되는 재료, 용구의 종류와 간단한 점과 선의 단계적인 표현으로 붓의 성질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붓글씨 표현은 붓의 성질을 알고 다루는 것이 학습의 기초가 된다. 이 단원은 붓글씨의 재료와 용구의 특성을 쉽게 이해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붓을 다루면서 다양한 성질의 점획을 체험하도록 구성하였다.

또, 학교 교육에서 붓글씨 학습은 문자를 아름답게 쓰는 것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우리 조상들이 붓글씨를 정신 수양의 중요한 과목으로 삼았듯이 붓글씨를 쓸 때 자신의 정신을 고요의 상태로 이끄는 학습 과정 또한 중요하므로 붓글씨 학습의 시작인 이 단원에서는 작품 표현과 더불어 쓰는 과정에서의 학습 태도, 재료와 용구를 다루는 태도 등의 중요성을 인식하

고 몸에 익히게 한다.

이 단원에서는 미리 재료, 용구의 바른 선택법을 지도하여 적합한 재료와 용구를 준비할 수 있게 하며, 붓글씨 쓰는 바른 자세 익히기와 바른 학습 태도 기르기에 주력한다. 그리고 학습이 끝난 다음에도 깔끔하게 뒷정리하며 재료와 용구를 바르게 휴대하고 보관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나) 판본체로 쓰기 (8단원)

이 단원은 앞 단원에서 익힌 붓의 성질을 활용하여 기본 획과 서체를 써봄으로써 판본체를 익히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예로부터 붓글씨가 선비들의 정신 수양의 중요한 과목으로 다루어져 왔듯이 붓글씨를 쓰는 차분한 마음가짐은 과학 문명의 발달로 자칫 소홀하기 쉬운 현대 어린이들의 정서 함양을 위한 좋은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또, 판본체는 훈민정음 창제와 더불어 만들어진 서체로 우리 민족의 위대한 문화유산인 한글을 붓글씨로 표현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간단한 문자를 직접 표현해 봄으로써 붓글씨를 경험하도록 의도하였다.

이 단원을 지도할 때에는 썩어진 붓글씨의 형태뿐만 아니라 쓰기 전의 마음가짐, 쓰는 과정, 쓰고 난 다음의 뒷정리 등에도 유의하며, 학습 결과인 작품보다는 학습 과정에 있어서 붓글씨 쓰기의 바람직한 태도 육성에 비중을 두어 지도한다.

### 2) 단원 목표

#### 가) 붓의 성질 (7단원)

- (1) 붓글씨 재료와 용구의 종류를 알고, 그 쓰임새를 이해한다.
- (2) 붓의 성질을 이용하여 다양한 점과 선으로 표현할 수 있다.
- (3) 붓글씨 쓰는 바른 태도와 재료, 용구를 바르게 다루는 습관을 가진다.

#### 나) 판본체로 쓰기 (8단원)

- (1) 판본체의 의의를 이해하고 그 기본 점획의 용필을 이해한다.
- (2) 판본체의 기본 점획을 바르게 쓸 수 있다.
- (3) 가로획과 세로획, 꺾은 획을 익혀서 '나라'를 판본체로 쓸 수 있다.

(4) 비스듬한 획을 익혀서 ‘서로’를 판본체로 쓸 수 있다.

(5) 바른 태도로 붓글씨를 쓰며, 재료와 용구를 바르게 다룰 수 있다.

### 3) 평가 관점

#### 가) 붓의 성질 (7단원)

(1) 붓글씨에 알맞은 재료, 용구를 바르게 준비하였는가?

(2) 붓을 바르게 잡고 그 탄력을 이용하여 세워 쓰는가?

(3) 바른 태도로 표현하는가?

#### 나) 판본체로 쓰기 (8단원)

(1) 바른 자세로 붓글씨를 쓰는가?

(2) 차분한 마음가짐으로 끝까지 정성들여 붓글씨를 쓰는가?

(3) 가로획과 세로획의 굵기, 방향, 기필과 수필에서의 용필이 바른가?

(4) 비스듬한 획을 대칭 방향으로 쓸 수 있는가?

(5) 서체의 두 글자에서 자음과 모음의 결합이 바른가?

(6) 재료와 용구를 바르게 다루며 뒷정리를 깨끗이 하는가?

## 나. 4학년

### 1) 단원 개관

#### 가) 판본체로 쓰기 (6단원)

이 단원은 3학년에서 익힌 판본체의 기본 획을 바탕으로 다양한 서체를 쓰게 함으로써, 한글 서체 중 하나인 판본체를 익히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판본체의 용필은 붓글씨의 기본이 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조상의 문화유산인 한글을 아름답게 쓰는 서예의 전통을 이해하고 계승하게 한다. 또, 우리 조상들이 붓글씨를 선비들의 정신 수양에 중요한 덕목으로 삼았던 점을 이해하고, 붓글씨의 외형적인 아름다움보다는 차분한 마음으로 붓글씨를 쓰는 과정에서 붓글씨가 가지는 정신적인 의의도 경험하도록 의도하였다.

이 단원을 지도할 때에는 단순히 글자의 모양을 본떠 그리듯이 쓰는 것이 아니라, 붓 다루는 방법에 따라 다양한 성질의 점획이 나타난다는 기본

적인 용필 지도를 바탕으로 글자의 구조를 파악한다. 또, 글자를 서로 어울리게 쓰도록 지도하며, 차분한 마음가짐으로 부드러운 성질을 지닌 붓을 정성껏 다루어 점획을 바르게 표현하도록 지도한다.

## 2) 단원 목표

### 가) 판본체로 쓰기 (6단원)

- (1) 판본체의 글자 모양과 그 짜임새를 이해한다.
- (2) 가로획과 세로획, 꺾은 획을 익혀서 판본체로 ‘부모’를 쓸 수 있다.
- (3) ‘ㅇ’의 쓰는 법을 익혀서 판본체로 ‘우리’, ‘하루’를 쓸 수 있다.
- (4) 비스듬한 획을 익혀서 판본체로 ‘바다 소라’를 쓸 수 있다.
- (5) ‘ㄱ’과 ‘ㅎ’의 변화를 익혀서 판본체로 ‘시내 호수’를 쓸 수 있다.
- (6) 서로의 작품을 감상하면서 글자의 모양과 짜임새에 관하여 이야기할 수 있다.
- (7) 재료와 용구를 바르게 다루며, 차분한 마음으로 정성껏 붓글씨를 쓰는 태도를 가진다.

## 3) 평가 관점

### 가) 판본체로 쓰기 (6단원)

- (1) 바른 자세와 차분한 마음가짐으로 정성껏 붓글씨를 쓰는가?
- (2) 판본체 기본 점획의 필법을 바르게 이해하고 쓰는가?
- (3) 자음과 모음을 바르게 결합하였는가?
- (4) 서체와 이름을 어울리게 배치하여 썼는가?

## 다. 5학년

### 1) 단원 개관

#### 가) 판본체, 궁체로 쓰기 (10단원)

이 단원은 3, 4학년에서 익힌 판본체의 용필법을 활용하여, 자형을 알고 어울리게 배자하여 다양한 서체를 쓸 수 있게 한다. 또, 한글 서체의 하나로 궁체를 이해하고 정자의 기본획을 익히며, 간단한 서체를 써 보게 한다.

궁체는 한글 특유의 문자 구조에 따라 생겨난 단정하고 아름다운 서체로서, 판본체에 비해 점획의 방향, 굵기, 점필의 위치나 방법, 길이 등의 변화

가 많으므로 다양하게 붓을 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정자의 기본획 필법을 익힘으로써 다양한 붓 사용법을 알고, 나아가 한글 모양의 아름다움을 이해하며 발전시키려는 의지를 가지도록 의도하였다.

이 단원에서 판본체 쓰기를 지도할 때에는 글자의 짜임과 글자의 배치에 유의하고, 궁체 쓰기에서는 판본체와 다른 궁체의 용필을 이해하고, 붓을 활용하는 방법을 이해하며 서체를 쓰도록 지도한다.

## 2) 단원 목표

### 가) 판본체, 궁체로 쓰기 (10단원)

- (1) 판본체의 자형을 알고, 서체를 어울리게 배자하여 쓸 수 있다.
- (2) 판본체와 궁체에서 붓 사용이나 자형의 차이점을 이해한다.
- (3) 궁체의 기본획을 익혀 ‘나무’와 ‘어머니’를 정자로 쓸 수 있다.
- (4) 수묵으로 그림을 그리고, 알맞은 글과 이름을 어울리는 위치에 쓸 수 있다.
- (5) 바른 자세로 정신을 집중하여 정성껏 붓글씨를 쓰는 태도를 가진다.

## 3) 평가 관점

### 가) 판본체, 궁체로 쓰기 (10단원)

- (1) 바른 자세로 정성껏 표현하였는가?
- (2) 판본체의 자형을 이해하고 어울리게 배자하여 썼는가?
- (3) 궁체의 기본획을 바르게 이해하고 서체를 썼는가?
- (4) 그림이나 서체에 어울리게 여백을 살려 이름을 썼는가?
- (5) 재료와 용구를 바르게 정리하였는가?

## 라. 6학년

### 1) 단원 개관

#### 가) 궁체로 쓰기 (5단원)

이 단원은 간단한 서체를 통해 궁체의 다양한 변화를 초보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궁체는 판본체에 비해 필법의 변화가 복잡하지만 한글만이 지니는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는데, 이 단원은 간단한 서체를 통

해 궁체의 기본적인 필법을 익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 붓글씨를 아름답게 쓰는 그 자체만이 아니라 붓글씨의 재료와 용구를 다루고 정리하는 전반적인 활동 속에서 전통 문화를 체험하고, 첨단 과학의 발달로 속도를 중시하는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어린이들에게 차분한 마음가짐으로 자신을 돌아보게 한다. 아울러 붓의 사용에 있어서도 부드럽고 섬세한 움직임이 필요함으로 어린이들의 정서 함양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 단원을 지도할 때에는 5학년에서 익힌 궁체의 기본 필법을 바탕으로 모음에 따라 달라지는 자음의 변화를 이해하고 쓰도록 지도한다. 붓은 많은 훈련을 통해서만 자신의 의도를 표현할 수 있지만, 필법을 이해하고 쓰게 하여 아름다운 글씨를 쓸 수 있는 능력과 짧은 시간이나마 스스로 집중하고 노력하는 태도를 가지도록 한다. 나아가 주변의 다양한 글씨의 서예 작품에도 관심을 가지도록 지도한다.

## 2) 단원 목표

### 가) 궁체로 쓰기 (5단원)

- (1) 재료와 용구를 바르게 다루고, 바른 자세로 정성껏 붓글씨를 쓰는 태도를 가진다.
- (2) ‘ㄷ’, ‘ㅌ’의 쓰는 법과 ‘ㄹ’의 변화를 익혀 궁체로 ‘머루 다래’를 쓸 수 있다.
- (3) ‘ㅍ’, ‘ㅎ’, ‘ㄴ’, ‘ㄹ’의 변화를 익혀 궁체로 ‘파란 하늘’을 쓸 수 있다.
- (4) 궁체 자형의 변화를 알고 서로 어울리게 배자하여 궁체로 ‘인사를 잘 하자’를 쓸 수 있다.
- (5) 서예 작품이나 서로의 작품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려는 태도를 가진다.

## 3) 평가 관점

### 가) 궁체로 쓰기 (5단원)

- (1) 판본체와 달라진 궁체의 필법을 아는가?
- (2) 점획의 필법이 바르고, 글자의 모양에 짜임새가 있는가?
- (3) 여백을 살려 어울리게 배자하여 썼는가?
- (4) 바른 자세를 갖추고 차분한 마음가짐으로 정성껏 표현하였는가?

(5) 자신의 재료와 용구를 바르게 정리하였는가? (붓 씻기, 베틀 정리, 쓴 화선지와 남은 화선지의 정리 상태를 확인한다.)

<표II-1> 각 학년별 서예 지도 내용 및 시간

학년	단원	시간	학습제재
3	7. 붓의 성질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료와 용구의 사용법 알아보기</li> <li>• 여러 가지 선으로 표현하기</li> <li>◇ 서로의 작품 감상하기</li> </ul>
	8. 판본체로 쓰기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바른 자세로 판본체의 기본획 익히기</li> <li>• 가로획과 세로획 쓰기 • 꺾은 획 쓰기</li> <li>• 판본체로 ‘나라’ 쓰기 • 비스듬한 획 쓰기</li> <li>• 판본체로 ‘서로’ 쓰기</li> <li>◇ 서로의 작품 감상하기</li> </ul>
4	6. 판본체로 쓰기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판본체에 관하여 알아보기</li> <li>• 판본체로 ‘부모’ 쓰기</li> <li>• 판본체로 ‘우리’ 쓰기</li> <li>• 판본체로 ‘하루’ 쓰기</li> <li>• 판본체로 ‘바다소리’ 쓰기</li> <li>• 판본체로 ‘시내호수’ 쓰기</li> <li>◇ 서로의 작품 감상하기</li> </ul>
5	10. 판본체, 궁체로 쓰기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판본체로 ‘친구’ 쓰기</li> <li>• 판본체로 ‘푸른산 흰구름’ 쓰기</li> <li>◎ 판본체와 궁체에 관하여 알아보기</li> <li>• 궁체로 ‘나무’ 쓰기</li> <li>• 궁체로 ‘어머니’ 쓰기</li> <li>• 이름 쓰기</li> <li>◇ 서로의 작품 감상하기</li> </ul>
6	5. 궁체로 쓰기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궁체로 ‘머루 다래’ 쓰기</li> <li>• 궁체로 ‘파란 하늘’ 쓰기</li> <li>• 궁체로 ‘인사를 잘하자’ 쓰기</li> <li>◇ 작품 감상하기</li> </ul>

## 2. 6학년 서예 교육 내용 및 서체 분석

### 가. 6학년 서예 교육 내용 분석

6학년 미술 교과서 5단원 ‘궁체로 쓰기’에서는 점획의 변화를 알고, 글자가 어울리게 정성껏 써 보는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제수가 많이 줄어들어 3서제만을 학습하도록 제시하고 있어 학습 부담을 줄이려한 의도가 보이며 ‘작품 감상하기’에서는 학생 작품과 옛 글씨를 제시해 글자의 모양과 짜임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였다. 학습 활동의 정리에서는 세부사항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도록 제시되었다.

<표Ⅱ-2> 6학년 미술 교과서 서예 단원 분석표

구분 단원	학습목표	학습제재	지도 내용
5. 궁 체 로 쓰 기	점획의 변화를 알고, 글자가 어울리게 정성껏 써 봅시다.	• 궁체로 ‘머루 다래’ 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붓, 벼루, 종이, 먹 등 서예용구의 기본적인 사용법 확인하기</li> <li>• 서제의 필법 분석하기</li> <li>• 궁체 정자의 기본 점획 필법</li> <li>• 8절 화선지 접는 방법</li> <li>• 낙관 쓰는 방법(낙관의 위치와 크기)</li> <li>• 알맞은 먹물의 농도 조절 방법</li> <li>• 화선지에 서제 바르게 쓰기 (궁체로 ‘머루다래’ 쓰기)</li> <li>• 화선지와 작품의 관리 방법</li> <li>• 감상하기(감상기준, 감상방법)</li> </ul>
		• 궁체로 ‘파란 하늘’ 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 흥, 나, 근의 변화 익히기</li> <li>• 8절 화선지 접는 방법</li> <li>• 화선지에 서제 바르게 쓰기(궁체로 ‘파란하늘’ 쓰기)</li> <li>• 알맞은 먹물의 농도 조절 방법</li> <li>• 화선지와 작품의 관리 방법</li> <li>• 감상하기(감상기준, 감상방법)</li> </ul>
		• 궁체로 ‘인사를 잘하자’ 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절 화선지 접는 방법</li> <li>• 궁체로 ‘머루 다래’, ‘파란 하늘’ ‘인사를 잘하자’ 쓰기</li> <li>• 화선지에 서제 바르게 쓰기</li> <li>• 감상하기(감상기준, 감상방법)</li> </ul>



<표Ⅱ-3> 미술과와 서예영역 배정시간

연간 미술 시간 수	서예 영역 지도 시간 수	비율	비고
64	6	9.3%(6/64)	

나. 서체 ‘머루다래’ 쓰기 분석

<그림Ⅱ-1> 궁체 ‘머루다래’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2007),  
초등학교미술6, p.18

1) 장법 : 서체는 궁체이고 네 자 두 줄 세로쓰기로 썼다. 8절 화선지에 낙관을 고려하여 쓴다. 기준선에 일치하도록 하고, ‘래’의 ‘ㄹ’은 너비가 넓어서는 ‘ㅁ’을 조합하여 쓰면 너비가 넓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글자의 크기는 미리 손으로 연습하고 쓰지 않으면 전체의 어울림에 문제가 생긴다. 첫 획과 첫 글자가 전체의 조화와 균형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주의해서 쓴다.

2) 결구법 : 5학년에서 주어졌던 서체 ‘어머니’에서 썼던 ‘머’가 다시 제시되었다. ‘루’는 ‘ㄹ’의 간격과 ‘ㄷ’까지 3곳의 간격이 비슷하게 썼다. ‘다’에서 가로획은 ‘ㄴ’은 천접이 되게 썼다. ‘ㅁ’의 처음 세로획은 ‘ㄹ’의 우측 상단을 감싸는 듯한 느낌으로 썼다. ‘루’와 ‘래’에서 ‘ㄹ’은 모양과 크기가 많이 다름을 알아야 한다. ‘래’의 너비를 고려하여 왼쪽으로 약간 치우치게 썼다.

3) 용필법 : ‘머’는 이미 학습했던 내용이므로 쉽게 쓸 수 있을 것이다. ‘루’에서 ‘ㄹ’은 ‘래’의 ‘ㄹ’과 다른 필법임을 분석하여 안 다음 쓴다. ‘ㄹ’ 부분은 판본체의 결구 방법과 다름을 알고 써야 한다. ‘다’에서 ‘ㄷ’은 가로획

에 ‘ㄴ’을 쓸 때 천접이 되도록 하고 가로획 기필 부분의 끝부분에 위치하도록 썼다. ‘ㄱ’, ‘ㅏ’, ‘ㅑ’에서 점의 위치와 모양을 분석하여 알고 쓴다.

#### 다. 서체 ‘파란하늘’ 쓰기 분석

<그림 II-2> 궁체작품 파란 하늘



1) 장법 : 서체는 궁체이고 너자 두 줄 세로쓰기로 썼다. ‘늘’을 바르게 기준선에 맞추지 않으면 좌우로 치우쳐 보일 가능성이 크다. 8절 화선지에 쓰기에 적당하고 낙관을 생각하여 어울리게 쓴다. 받침 있는 글자와 받침이 없는 글자가 섞인 서체이기 때문에 각 글자의 길이에 주의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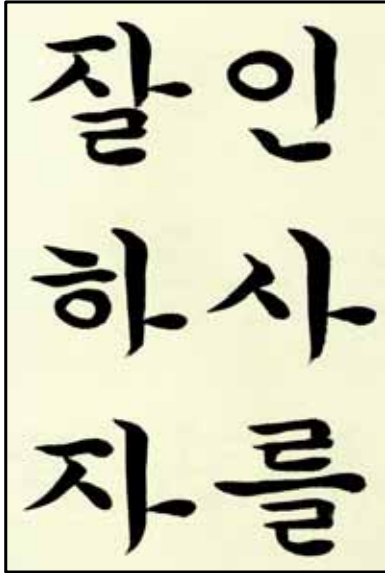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2007),  
초등학교미술6, p.19

2) 결구법 : ‘파란하늘’ 서체에는 ‘ㄴ’과 ‘ㄱ’ 받침이 있다. 수평점이 있는 ‘ㅏ’가 세 글자나 된다. 왼쪽 자음 하단에 수평점을 천접으로 쓴다. ‘파’에서 가로획과 세로획은 아래에서는 길게 접필하나 위쪽은 닿지 않게 썼다. 가로획은 우측이 위로 향하게 썼다. ‘ㅎ’에서 중심을 알고 써야 된다. ‘늘’에서 네 군데의 간격을 고려하여 쓴다.

3) 용필법 : ‘ㄲ’은 가로획을 쓸 때 오른쪽이 약간 위쪽으로 올라가게 써야 한다. ‘ㄲ’에서 세로획은 아래쪽의 가로획에 심접이 되도록 썼다. ‘ㅏ’에 붙는 수평점은 ‘ㄲ’의 아래 가로획의 시작 부분과 같은 위치에서 천접이 되게 썼다. ‘하’에서 ‘ㅎ’은 위에 쓰는 점은 기필하여 힘 있게 누르면서 회봉을 생각하여 쓴다. ‘늘’에서 획과의 간격을 고려하여 거의 일정하게 쓴다. ‘ㄴ’의 모양과 ‘ㄱ’의 모양이 서로 다음을 알고 써야 한다. ‘ㄱ’에서 접필 하는 방법이 판본체와 다름을 알고 쓴다. ‘ㄴ’과 ‘받침ㄴ’의 모양이 서로 다른 점을 잘 분석하여 알고 쓴다.

## 라. 서체 ‘인사를 잘 하자’ 쓰기 분석

<그림 II-3> 궁체작품 ‘인사를 잘 하자’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2007),  
초등학교미술6, p.20

1) 장법 : 서체는 궁체이고 6자 세로 두 줄 쓰기로 썼다. 4절 화선지에 기준선을 맞추고 가로 줄에는 그리 신경 쓰지 않아도 되며, 세로줄에 맞추어 써야한다. 얼핏 보기에 ‘인사를’이 ‘잘하자’보다 약간 아래로 쳐져 있는 느낌이 들기는 하지만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받침으로 ‘ㄹ’이 두 번 사용되었다. 낙관은 학교명, 학년 반, 이름까지 쓰도록 하는 것이 좋다. 이 때 낙관에 사용되는 글자의 크기를 미리 생각하고 연습한 다음 써야 한다. 한 자 한 자 정성을 다하여 쓰고, 낙관도 끝까지 인내심을 갖고 써야 한다.

2) 결구법 : 받침 ‘ㄴ’, ‘ㄹ’은 앞 차시에서 학습하였다. ‘인’, ‘잘’에서 ‘이’, ‘자’는 받침이 있으므로 약간 작게 썼다. ‘사’와 ‘하’, ‘자’는 글자의 너비가 넓어질 수 있으므로 ‘ㅅ’과 ‘ㅎ’, ‘ㅈ’이 ‘ㅊ’와 알맞은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잘’에서는 받침이 있으므로 ‘ㅈ’을 짧게 쓰고, ‘ㅊ’도 짧게 써야 받침 ‘ㄹ’을 써도 무리가 없게 된다. 받침이 있는 ‘인’과 ‘를’ ‘잘’이 길어지지 않게 유의한다.

3) 용필법 : 세로쓰기에서는 항상 세로획이 기준선에 일치하도록 써야 됨을 알고 있어야 한다. ‘인’은 ‘이’와 달리 받침이 있으므로 조금 작게 썼다. ‘ㅣ’도 받침이 있으므로 없을 때보다 짧게 써야 받침 ㄴ을 써도 무리가 없다. ‘를’은 왼쪽 끝이 기준선에 오도록 써야 들어가게 또는 튀어나오게 보이지 않는다. ‘잘’도 받침이 있으므로 ‘자’를 약간 작게 써야 전체 균형이 맞게 된다. ‘하자’는 ‘사’와 같은 요령으로 쓰면 된다. 이 때 자음과 모음은 접필 하지 않는다.

<표II-4> 교과서에 나오는 서제의 날자

모음	ㅡ ㅣ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ㅝ ㅞ
자음	ㄴ ㄷ ㄹ ㄱ ㅋ ㅌ ㅍ ㅎ
받침	ㄴ ㄹ
점	수평점, 사점, 수직점, 윗점(상위점), 빼침점

<표II-5> 교과서에 나오는 서제 분석표

구분 서제	기본 점획	지도요소	중점지도요소		형태
	점획 쓰기	자모음 쓰기	날자쓰기	문장 쓰기	
머루 다래	수평점, 빼침점	ㅁ, ㄱ, ㄹ, ㅓ, ㄷ, ㅏ, ㅛ	ㅁ의 첫 획과 2,3획의 결구, ㅓ의 세로획과 가로획의 접필, 글자의 균형 ㄹ과 ㅛ와의 조화, 세로기선과 자간 및 장법		세로 쓰기
파란 하늘	수평점, 윗점,	ㅍ, ㅏ, ㄹ, 받침 ㄴ, ㅎ, ㄴ, 받침 ㄹ	ㅏ 앞의 ㅍ, ㄹ, ㅎ, 세로기선과 자간 및 장법		세로 쓰기
인사를 잘하자	수평점, 사점, 윗점	ㅇ, ㅣ, 받침 ㄴ, ㅅ, ㅏ, ㄹ, ㅡ, 받침 ㄹ	ㅁ의 첫 획과 2,3획의 결구 ㅓ의 세로획과 가로획의 접필 ㅁ과 ㅓ의 결구 세로기선과 자간 및 장법		세로 쓰기

### 3. 서예학습을 위한 기초 지식

#### 가. 서예 용구의 선택 및 보관법

글씨를 쓸 때 필요한 용구와 재료는 문방사우(文房四友)인 붓, 먹, 베틀, 종이가 그 기본이며 그 외에 서진(書鎮), 연적(硯滴), 붓걸이, 종이 받침(깔개) 등을 마련한다.

<표II-6> 서예 용구의 선택 및 보관법

용구	좋은 용구의 선택법	사용 및 보관법
붓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털이 곧고 탄력이 있는 것</li> <li>붓에 물이나 먹을 문혔을 때 원추형이 되는 것(붓의 호가 좋은 것)</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용 후에는 깨끗이 빨아 거꾸로 매달아 놓아 붓이 구부러지지 않게 하고 물기를 말려 둔다.</li> <li>필관을 잘 매어 두고 신문지나 베틀 위에서 쓰지 않는다.</li> </ul>
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입자가 가늘고 가벼우면서도 단단해야 하고 먹색이 순수하고 광택이 있는 것.</li> <li>두들겨서 소리가 맑고 같은 크기의 먹이면 가벼운 것이 좋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물기를 닦아 보관하며 햇빛이나 찬바람, 습기를 피하여 보관한다.</li> </ul>
베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물이 잘 마르지 않고 먹이 곱게 갈리는 것( 크기는 18×25cm정도)</li> <li>손으로 만져 부드럽고 윤택이 있는 것.</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깨끗하게 닦아서 갈도록 한다.</li> <li>사용 후에는 잘 닦아 두어야 다시 사용할 때 먹색이 변하지 않고 맑다.</li> </ul>
종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드럽고 먹물의 흡수가 좋은 화선지가 좋으며, 매끄러운 쪽에 쓴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직사광선과 습한 곳을 피하되 너무 건조하지 않은 곳에 보관한다.</li> <li>오래 보관할 때에는 비닐에 싸서 밀폐시켜 둔다.</li> </ul>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종이를 움직이지 않게 하는 서진, 모포나 용단으로 만든 종이 받침(깔개), 붓을 걸어두는 붓걸이나 휴대하기 편하게 붓을 싸 두는 붓 말이, 붓꽂이, 물을 담은 연적 등이 있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종이 받침은 접은 자국이 나지 않게 말아서 보관하며, 연적은 입이 좁은 플라스틱 병을 사용하는 것도 좋다. 붓걸이에 붓을 걸 때는 붓에 있는 물기를 잘 닦는다.</li> </ul>

## 나. 바른 자세

서예 학습에 있어서 자세는 매우 중요하다. 서예 공부를 할 때에는 언제나 바른 마음가짐으로 붓끝에 온 정신을 집중시켜 정숙하고 단정한 자세로 임하여야 한다. 붓 잡는 법, 팔의 자세, 몸가짐 등을 바르게 해야 운필이 자유롭고 바르게 표현할 수 있다.

### 1) 몸의 바른 자세

#### 가) 앉아 쓰기 :

- 팔이 움직임이 자유롭게 되도록 팔꿈치는 지면과 수평을 이루게 하며, 붓대는 지면과 수직을 이루도록 잡는다.
- 책상과 몸 사이는 주먹 하나 들어갈 정도로 하고 등은 곧게 세우고 의자에 기대지 않으며, 가슴을 펴고 배도 책상에 붙이지 않고 머리는 약간 숙이고 앉는다.
- 다리는 어깨 너비 정도로 편안하고 안정감 있게 벌린다.
- 왼 손은 종이를 지그시 누르되 팔 전체가 책상위로 올라가지 않도록 주의한다.

#### <그림 II-4> 앉아 쓰기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2007)  
대한교과서주식회사. 미술3. p28

나) 옆드려 쓰기 : 무릎을 모아 구부리고 허리는 약간 앞으로 구부리며 왼팔은 곧게 뻗어 종이를 누르고 균형이 잡히도록 앉는다.

다) 서서 쓰기 : 큰 글씨를 쓸 때 취하는 자세로 두 다리를 약간 벌려 책상 앞에서 약간 떨어지도록 하고 허리는 약간 구부리며 왼팔은 종이를 누른다.

### 2) 붓 잡는 방법(집필법)

붓을 바르게 쥐고 운필을 하면 서사능력 발달이 빠르다. 붓을 잡는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4가지 방법을 들 수 있으나 주로 쌍구법이나 단구법을 사용한다.

<그림 II-5> 쌍구법

가) 쌍구법(雙鉤法) :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 가운데 손가락으로 붓대를 감싸 잡는 방법으로 붓대의 가운데보다 약간 아래쪽을 잡는다. 가장 일반적이며 기초적인 방법으로 보통 서체를 쓸 때 알맞은 방법이다. 제완과 현완에 다 활용된다.



자료 : 용봉초등학교(2006)  
맞춤식직무연수자료

나) 단구법(單鉤法) : 침완으로 할 때 잘 적용되며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으로 붓을 잡고 나머지 손가락은 붓대의 안쪽에서 받쳐준다.

이 방법은 붓털에서 가까운 붓대 아래쪽을 잡는다. 서체를 쓰던 붓을 단구법으로 잡으면 잔글씨를 쓸 수 있으므로, 이름 쓰기에는 이 방법으로 지도한다.

<그림 II-6> 단구법



자료 : 용봉초등학교(2006)  
맞춤식직무연수자료

다) 발등법(오지집필법, 오지법) :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으로 붓을 잡고 가운데 손가락과 약손가락을 집게손가락에 나란히 붙이고 새끼손가락을 붓대의 안쪽에 댄다. 아주 큰 글자를 쓸 때 큰 붓을 잡는 방법이다.

라) 악필법(握筆法) : 맷돌의 손잡이를 잡을 때처럼 붓을 잡는 법이다.

<그림 II-7> 현완법

### 3) 팔의 자세

팔의 자세는 글씨의 크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팔의 자세를 완법이라고 하는데 이 원리를 알고 써야 좋은 글씨를 쓸 수 있다.



자료:용봉초등학교(2006)  
맞춤식직무연수자료

가) 현완법 : 서예 학습의 가장 기본이 되는 방법으로 왼손으로 종이를 가볍게 누르고, 팔뚝을 어깨 높이로 들어 오른 팔꿈치를 지면과 나란하

게 들고 쓰는 방법을 가리키는데 대개는 팔꿈치를 책상에 대지 않는 것을 통틀어 말한다. 큰 글씨를 쓰기에 알맞으며 팔을 높게 들거나 낮게 드는 경우가 있지만 팔꿈치는 몸에서 자연스럽게 떨어져야 한다. 이 법은 붓을 잡는 다섯 손가락의 힘이 고루 들어가며, 이것을 흔히 오지제력(五指齊力)이라 한다. 이 때 다섯 손가락의 관절을 모두 꺾어야 손바닥 공간이 최대로 커져 계란 하나 들어갈 정도가 되고 이 공간이 생기면 다섯 손가락이 경직되지 않아 자연스럽게 붓을 놀릴 수 있게 된다.

나) 침완법 : 왼 손등으로 오른손 밑을 받치고 쓰는 방법으로 단구법으로 붓을 잡고 잔글씨를 쓰는데 알맞다.

다) 제완법 : 팔 뒤꿈치만 책상에 가볍게 대고 쓰는 방법으로 침완법 보다 자유롭고 중간 크기의 글씨를 쓰는데 알맞다.

## 다. 서예필법

### 1) 결체방법

가) 자형 : 어떤 글자를 썼을 때 외형을 꾸미는 직선의 모양을 말한다.

서(◁) 소(△) 응(◇)

나) 결구 : 한 글자를 썼을 때 획 간의 간격과 붙이는 정도를 말하는 것으로 자음은 우측에 오는 모음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다) 간가 : 획 간의 간격이 규칙적인 것을 이르는 것으로 좌우 간격, 상하 간격, 그리고 중심선의 위치를 바르게 해야 한다.

라) 점필 : 점과 획, 자, 모음 사이의 점, 획이 붙은 정도

마) 방향 : 점획의 운필 방향으로 수직 서선, 수평 서선, 사향 서선 등이 있다.

사) 조세 : 점획의 굵고 가늘의 규칙

아) 대소 : 점 획 또는 자, 모음의 크기

### 2) 운필법

글씨를 빠르고도 무겁게 늦고서도 가볍게 느끼도록 선을 표현하는 것은 운필에 달려 있다.



- 가) 필순 : 한 글자를 쓰는 데 있어서 점획의 운필에도 일정한 순서가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 ‘ㄱ’의 예를 들면 아래와 같다.
- 나) 필속 : 글자를 쓰는 데 있어서 한 점, 한 획마다 느리고 빠르게 쓰는 규칙이다.
- 다) 필압 : 한 글자의 위치에 따라 붓을 누르는 압력이 각각 다른 것을 말한다.
- 라) 필백 : 필압에 따른 시선의 내부에 줄기를 묘사한 것을 말한다.
- 마) 필세 : 글자를 쓰기 전에 붓을 움직이는 무형의 힘과 뜻을 말한다.
- 바) 필의 : 획과 획이 접필 될 때의 보이지 않는 붓의 가는 방향을 말한다.

### 3) 글감을 이해하는 필법 지도 방법

#### 가) 용필법(用筆法)

용필이란, 붓의 사용에 관한 것으로 서예 표현의 가장 기초적인 활동이다. 여러 가지 점획의 모양을 어떤 붓의 움직임으로 나타낼 수 있을지를 익혀 가는 것이다. 이것은 용필에 대한 바른 이해와 더불어 많은 연습이 필요하다.

- (1) 점과 획을 표현하는 데의 붓의 사용 위치에 따라 입필(入筆), 행필(行筆), 수필(收筆)의 세 과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속도, 방법 등이 다르다.
- (2) 입필(또는 기필)은 점획의 시작이며 행필은 방향을 살펴 긋는 것이며 수필은 점, 획의 마무리를 짓는 것이다. 힘을 준채로 천천히 붓을 대어(기필) 빠른 속도로 움직이며(행필) 천천히 붓을 거둔다(수필).
- (3) 기필에서 수필에 이르기까지 붓의 지면에 대한 각도는 수직을 이루도록 한다.

#### 나) 결구법(結構法)

글자의 짜임새를 익히는 것으로 점획 또는 자모음의 위치를 알맞게 정하여 하나의 문자를 바르고 아름답게 꾸미는 것을 말하며 결구의 요소로는 자형(字形)·간가(間架)·접필 방향(接筆方向)·장단(長短)·대소(大小) 등이다.

#### 다) 장법(章法)

작품에서 글자의 구성, 즉 배자 지도이다. 행간(行間)이나 자간(字間), 서

제와 낙관과의 어울림, 상하좌우의 가장자리 여백 등으로 그림에서 구도와 같은 것이다. 즉 화선지에 글감을 알맞게 배치하여 전체와 부분이 조화롭게 이루어지게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말한다. 글감에 따라서 화선지를 접어서 활용하도록 하였으며, 즐친 화선지나 받침종이를 사용하기도 한다.

#### 다) 중봉법(中鋒法)과 편봉법(偏鋒法)

붓끝이 획의 중앙을 통해야 하며, 붓의 호(毫)가 둥글고 바른 모양이 되어 한 쪽으로 치우친다거나 비스듬하게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것을 중봉 필법이라고 한다. 중봉으로 쓴 글씨는 근·골·혈·육(筋·骨·血·肉)이 생겨서 아름답고 강한 선질(線質)을 이루게 된다. 이런 선질을 정확(正畫) 또는 심획(心畫)이라고 한다. 원래 붓의 호는 둥글기 때문에 이 중봉의 선은 매끄럽고 탄력이 있으며 둥근 기둥과 같은 입체감이 나타나 편봉보다 더 힘 있고 무거운 느낌을 받는다.

또 붓끝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우를 편봉(偏鋒) 또는 측봉법(側鋒法)이라고 한다. 편봉은 필봉을 누여 붓 허리로 쓰는 것으로 경지에 이르면 편봉이 잘 응용되나 초심자에게는 금물이다 편봉은 거칠고 힘이 있는 획이 된다.

초심자는 글씨를 쓸 때 항상 편봉이 되지 않게 붓을 수직으로 세워 써야 한다

#### 라) 장봉과 노봉

장봉은 붓을 댈 때 붓 끝을 감추어서 쓰는 것이고 노봉은 붓 끝을 노출하여 쓰는 방법이다. 장봉을 하려면 역입을 하여야 하고 장봉으로 쓴 글씨는 가득한 기운을 함축하여 중후한 느낌을 준다.

노봉은 행서나 초서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연미하며 활발한 느낌을 준다. 초심자는 반드시 장봉으로 써야 하며 노봉이 쉽고 편하다고 버릇을 들여 놓으면 헛일이다.

#### 마) 원필(圓筆)과 방필(方筆)

원필(圓筆)은 붓을 댈 곳과 펜 곳이 둥근 형태를 이루게 하는 것이다. 전서나 안진경 필체가 대표적인데 온유하면서도 중후한 느낌을 낼 수 있다.

방필(方筆)은 그와 반대로 각을 이루는 것이다. 여러 가지 한예(漢隸)와

북위(北魏) 시대의 해서가 대표적이며, 그 특징은 생경하고 힘준한 느낌을 준다. 역사적으로 볼 때 원필(圓筆)과 방필(方筆)은 서풍과 자형에 따른 서법의 양대 조류라 할 만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 라. 글씨를 임시 하는 방법

서예 학습의 효율적인 방법으로 다독(多讀), 다임(多臨), 다문(多聞) 등 삼다(三多)를 해야 하는데 이 중에서 다임을 더욱 많이 해야 한다고 한다. 이 중 다임 활동이 바로 임모 학습인 것이다.

임모란 문자를 쓰는 연습과정으로 교본(법첩)의 문자를 겹쳐 쓰는 모(摹)와 문자를 옮겨 쓰는 임(臨)을 합하여 부르는 서예학습의 기초과정 활동으로 흔히 임시라고 부른다.<sup>4)</sup>

임서는 단계적서예학습지를 확대하여 쓰고 각종 필법을 표시하여 겹쳐 쓰기를 할 수 있도록 인쇄한 종이를 활용하면 효과적이다. 이 때의 차례는 농서·골서 한 다음에 백지 위에 글감을 보고 쓰기를 하면서, 먼저 교사의 구호에 따라 일제히 써 본 뒤 다시 개별로 써보는 방법으로 임시하게 된다.

- 1) 모서법(謀書法) : 교본, 법첩 등을 투명지를 덮어서 투사하여 쓰는 방법으로 결구나 간가를 익히는데 좋다.
- 2) 농서법(籠書法) : 교본의 글자 위에 투명한 종이를 놓고 짐·획의 테두리를 그려서 그 위에 붓으로 덮어쓰는 방법이다.
- 3) 골서법(骨書法) : 교본의 골격, 즉 중심선을 투명한 종이에 옮겨 그려서 그 위에 붓으로 쓰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자형이나 결구를 공부하는데 좋으나 필력이나 필의를 살리기는 나쁘다.
- 4) 투서법 : 교본 위에 투명한 종이를 대고 그 선 위에 쓰는 방법
- 5) 청서법 : 연습을 마친 후에 화선지에 정리하여 쓰는 것을 말하는 데 먹을 충분히 갈아 놓고 화선지를 준비하여, 글자 수에 알맞게 화선지를 접고 본문을 쓴다. 알맞은 위치에 낙관을 한다. 이 때 유의할 점은

4) 박병천, 「임모 교수-학습의 효과적인 한 방안」, 『월간서예 4월호』, 서울: 월간 서예사, 1995, p.45.

화선지가 구겨지지 않도록 하고, 먹을 너무 진하게 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정확히 글씨를 쓰도록 해야 한다.

#### 마. 용어의 이해

- 1) 먹색: 먹물의 먹 농도나 그 쓰는 속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색의 느낌을 말한다.
- 2) 문방사우(文房四友): 문방이란, 옛날 선비들의 방을 말하며, 선비들이 그 방에서 사용하던 도구들을 문방구라 한다. 문방사우란, 문방의 4가지 벗이란 의미로, 선비들이 가장 가까이 하던 종이, 붓, 먹, 벼루를 이르는 말이며 문방사보(文房四寶)라고도 한다.
- 3) 낙관: 붓글씨나 그림에서 이름이나 호, 제작 시기, 표현 내용의 출전이나 표현 이유 등의 문장을 끝 부분에 첨가하여 쓰는 것을 말한다. 서제의 양이나 여백에 따라 이름만 쓰거나 학년, 반, 이름을 쓰기도 한다. 또, 붓글씨 대회 등에 참가할 경우에는 학교명, 학년, 이름 등을 쓰게 된다. 낙관은 서제와의 어울림이 가장 중요하며 일차적으로 서제와의 관계를 생각하여 글자 수, 글자 크기가 정해지게 된다.
- 4) 접필(接筆): 점획을 서로 붙여 쓰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ㄷ’에서 세로획의 접필은 판본체와는 다르게 윗 획에는 접필하지 않고 다음에 오는 획에 접필된다. 또, 궁체에서는 ‘丨’의 점을 깊게 접필하면 아무리 접필 위치가 다르더라도 산뜻하거나 세련된 맛이 없어진다.  
판본체에서는 단단하고 견고하게 접필하는 한 가지 방법뿐이다. 그리고 자음과 모음은 항상 접필하지 않는 원칙이 지켜지고 있다. 그러나 궁체에서는 접필의 상태가 자음, 모음의 경우에 따라 매우 다양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궁체에서는 접필의 위치 뿐 아니라 접필의 상태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 5) 배자: 정해진 종이에 서제의 글자를 배치하는 방법을 말한다.
- 6) 여백: 글씨 쓴 부분을 제외한 공간. 글자와 글자 사이, 행과 행 사이, 상하 좌우의 가장 자리에 생기는 여백을 생각하여 배자해야 작품 구성에 짜임새가 있게 된다.

- 7) 집자 : 붓글씨의 표본이 되는 고전에서 필요한 글자를 가려 뽑는 것을 말한다.
- 8) 기필(起筆): 점획에서 붓을 대어 쓰기 시작하는 부분을 말한다.
- 9) 수필(收筆): 점획을 다 쓴 다음 붓을 지면에서 떼는 부분을 말한다.
- 10) 용필(行筆): 점획의 시작 부분인 기필, 끝 부분인 수필, 그 중간인 행필의 3단계로 붓의 사용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서체마다 점획의 특징을 용필의 3단계로 분석할 수 있다.
- 11) 역입(逆入): 기필에서의 용필법으로 붓끝이 드러나지 않게 거꾸로 붓을 대어 쓰는 것으로 붓끝이 붓의 진행 방향으로 향하게 된다.
- 12) 회봉(回鋒): 수필에서 용필법으로 붓끝이 드러나지 않게 붓을 되돌려 떼는 것으로 붓끝을 향해 밀면서 붓을 세워 댄다.
- 13) 전절: 점획에서 방향이 바뀌는 부분으로 휘게 쓰는 것을 ‘전(轉)’, 꺾어 쓰는 것을 ‘절(浙)’이라고 한다. 판본체에서는 ‘ㅇ’만 둥글게 굴러 쓰고, 다른 모든 전절에서는 꺾어 쓴다. 그러나 궁체에서는 그 변화가 매우 다양하다. 꺾어 쓸 때나 굴러 쓸 때 굽기와 위치 등에 다양한 변화가 생긴다.
- 14) 필세: 붓을 씻는 그릇으로 물통을 대신할 수 있다.

#### 4. 궁체의 개념과 특성

자기 나라의 고유한 언어와 문자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문화 민족으로서의 긍지를 높여주고 정신문화 창달을 꾀하기 위한 근본 기틀이 되는 것이다.

세종 25년(1443년)에 훈민정음이 제정 반포됨으로써 우리는 독창적이고 과학적인 우리글을 갖게 되었으며, 문화 민족으로서의 긍지도 지니게 되었다. 반포 당시의 글씨체를 판본체 혹은 정음체라 한다.

판본체는 훈민정음과 동국정운의 글씨 같은 원필체에서 월인천강지곡,

용비어천가 등의 글씨인 방필체로 바뀌었다. 그러나 판본체는 획이나 글씨의 짜임이 자못 도식적이어서 쓰기에 불편하였으므로, 마치 한자의 전서, 예서가 해서로 변모한 것과 마찬가지로, 성종 시대를 전후하여 쉽고 자연스럽게 쓸 수 있도록 변하였다. 이것이 곧 월인석보나 두시언해에서 볼 수 있는 필사체이다. 한글과 한자가 함께 쓰인 필사체를 흔히 혼서체라고 한다.

숙종 시대에 이르러 한글은 궁녀들에 의해 새롭게 정리되면서 아름답기 그지없는 글씨가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한글의 대표적인 서체인 궁체이다.

### 가. 한글 궁체의 정의

'궁체는 궁중에서 생겼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정음체(正音體)는 반듯하게 써서 읽기 쉬우나 쓰기에 곤란한 점이 많고 방한체(倣漢體)<sup>5)</sup>는 쓰기에는 빠르고 쉬우나 읽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으므로 이 양체의 단점을 보완하고 한글의 고유성에 적합한 이상적인 서체의 필요성에 따라 생긴 것이 궁체이다. 특히 조선중기 한글의 생활화가 활발해지자 궁중에서도 교서, 언간 쓰기, 소설 베끼기 등에 종사하는 서사 상궁이 필요하게 되었다.<sup>6)</sup> 따라서 아름답고 독창성 있는 서체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 고안된 것이 궁중 서체로서 이것을 줄여 궁체라고 부르게 되었다.

이 궁체는 우아하고 단정하며 유연한 자연스러움으로 서사문자로서 완성미를 보이고 요즈음에 와서는 더욱 예술화되고 있는 것이다.

궁체의 생성과정을 살펴보면 전기 정음체에서 약간의 필사적인 느낌이 표현된 후기 정음체로 변하고 이것들이 더욱 필사화하여 방한체로 변하였다. 이렇게 변화된 방한체는 현종대왕 어필에서 궁체의 특징이 약간 나타나고 명성왕후의 필체에서 더욱 궁체의 느낌이 나타났다. 현종 조(1660~1664)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궁체는 숙종 조에 들어와서 엄정(嚴正)·단아(端雅)·미려(美麗)·원만한 궁체의 완성을 보게 되었으며 조선말까지 고전체로 쓰

5) 방한체(倣漢體):한자의 서체를 모방하여 쓴 필사체를 방한체라 시제(試題)하였는데 이 체를 흔히 모방체, 효빈체라고도 한다. 박병천, 『한글 궁체의 연구』, (서울:일지사), 1990, P.103.

6) 윤양희, 「언간의 연구」, 건국대학술집 16집에서 재인용, 1973, P.39.

다가 해방이후 현대서체로 발전하게 되었다.

조선 중기 이후부터 말기까지 궁중에서는 궁체로 쓴 책을 많이 남겼고, 일반에서도 궁체가 실용화되었다고 한다.

그 당시에는 예술작품으로 쓴 것이 아니고 실용적으로 썼으나(서간체 및 등서체) 오늘날에는 그 아름다움이 인정되어 한글 서체의 기본으로 삼고 있으며 학교 교육에서나 예술계에서 더욱 아름답게 예술 작품화하는데 힘 쓰고 있다.<sup>7)</sup>

## 나. 궁체의 분류

<그림 II-8> 남계연담 권지삼

궁체는 필속에 따라 한자의 해서와 같이 해정(楷正)하고 간결하며 정적인 느낌이 나도록 쓴 정자체와 한자의 행서·초서와 같이 동적이며 유연미가 있는 흘림의 서체가 있다. 이는 반흘림, 흘림, 진흘림으로 나눌 수 있다.

정자체는 필사본에 비하여 점획의 방향과 위치 등이 서로 섬세하게 조화를 이루도록 배치하였다. 모음의 가로·세로선을 길게 강조하여 글자의 중심을 오른쪽으로 치우치게 하며 세로선을 가지런히 맞추어 어울리게 쓴다. 모음을 자음의 점획에 따라 보다 치밀하고 조화



자료 : 용봉초등학교(2006)  
맞춤식직무연수자료

로운 조형을 갖추기 위함이라 할 수 있다. 힘 있게 굵는 모음 획과 대부분이 아름다운 곡선으로 이루어진 자음이 서로 어울려 강한 듯 부드러운 듯, 절묘한 조화를 이루는 이 정자는 쓰는 이의 정성을 몽클하게 느낄 수 있는 반면, 속도가 느리다. 조용함, 엄숙함, 안정감 등의 느낌이 나며 주로 사기, 훈계하는 글, 소설, 어른께 올리는 글 등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대표적인 글씨로는 <옥원동회연 권지육>, <남계연담 권지삼>, <평산 내연 권지팔> 등이 있다.

7) 박병천, 『고등학교 서예』, (서울:삼중당,1985), p.6.

<그림 II-9> 낙성비룡 권지일

반흘림은 정자체를 주로 하여 약간의 흘림체를 곁들인 것이다. 쓰는 속도도 정자와 비슷하다. 정자와 흘림 두 체에 다 능한 필치여서 까다로운 체다. 이 글씨는 아주 드물어, [낙성비룡 권지일]과 덕온 공주가 쓴 [일찰금]에서 볼 수 있다.

흘림체는 정자를 바탕으로 하면서 자모음의 흘림이 많아지고, 운필의 속도가 빨라지며, 자음과 모음이 이어진다. 흘림체는 모양이 매우 유려하여 보기에 좋고 쓰기에 즐겁다. 그래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체이기도 하다. 소설, 가사, 사기, 편지글, 규합총서 등 어디에서나 볼 수 있다.



자료 : 용봉초등학교(2006)

맞춤식직무연수자료

진흘림은 파격적이고 자유분방한 글씨체이다.

진흘림은 정자와 흘림을 섞어 쓸 수도 있다. 자모음의 연결은 물론, 글자와 글자의 연결도 자유롭고, 속도 또한 무척 빨라 필치가 능숙하지 않으면 쓸 수 없다. 쓰는 이의 경지를 그대로 맛볼 수 있는 이 체야말로 가장 예술적인 글씨라 할 수 있겠다.

또, 내용에 따라 소설 내용을 한글로 베껴 쓴 등서체(騰書體)와 편지글을 쓴 서간체(書簡體)가 있다. 등서체는 배자·자형·필법 등이 규칙적이며 정돈된 느낌이 나는데 비해, 서간체는 불규칙적이며 자유분방하므로 필자의 개성이 뚜렷이 나타난다.



## 다. 궁체의 예술성

서예의 미는 점과 획(서선)이 지니는 점획의 미, 한 글자가 지니는 자형의 미, 여러 글자들로 이루어지는 전체의 구성미로 나눌 수 있다. 궁체는 이러한 미를 고루 갖추고 있으며 이를 더 구체적으로 밝히면 다음과 같다.

궁체의 기본 점획들은 부드럽고 소박하고 온화하고 경쾌하면서도 무게가 있게 표현되었다. 그리고 궁체의 정자는 바르고 안정된 글자들로 전체 구성에 있어서 균제미를 느끼게 하고, 흘림은 자간이 고르지 않으나 전체적으로 유연미와 균형미를 느끼게 한다.

또 글자와 글자간의 여백과 글자 사이 서선끼리의 여운의 미를 느낄 수 있는데 이것은 특히 궁체 흘림보다는 정자에서 더욱 느낄 수 있다.

또 궁체는 글자와 전체 문장의 쓰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동(動)과 정(靜), 지속, 완급, 억양 등이 먹색과 잘 조화되어 끊긴 듯 이어지는 기맥(氣脈)과 유동미(流動美)로 쾌감과 아름다움을 더욱 느끼게 한다.<sup>8)</sup>

## 5. 궁체의 지도 방법(교과서 서체를 중심으로)

### 가. 궁체 기본 획(가로획, 세로획) 쓰기

- 판본체와 궁체의 차이점(용필과 자형) 알아보기

<그림 II-10> 판본체 ‘나무’와 궁체 ‘나무’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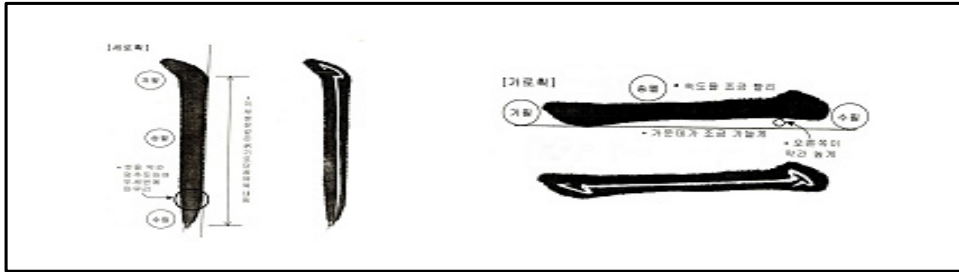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2007), 초등학교 미술5, p.38

- 궁체 기본 획의 모양 알아보기 - 붓대는 방법, 점획의 굵기 변화, 방향 등

8) 박병천, 전계서, pp.122-123.

- 궁체 기본 획(가로획, 세로획) 쓰기

<그림 II-11> 궁체의 기본획(가로획, 세로획)



자료 : 제주도교육과학연구원(2003), 특기·적성 지도자료 서예(초급·중급), p.80

- 서체에 사용되는 점의 모양과 방향 알아보기

<그림 II-12> 궁체의 기본 점



자료 : 제주도교육과학연구원(2003), 특기·적성 지도자료 서예(초급·중급), p.78

### 나. 궁체 4자(‘머루 다래’) 쓰기

- 붓글씨 쓰는 바른 자세를 확인하기 - 붓 잡는 법, 팔의 자세 이해
- 서체의 필법 분석하기 - 판본체와 달라진 필법 이해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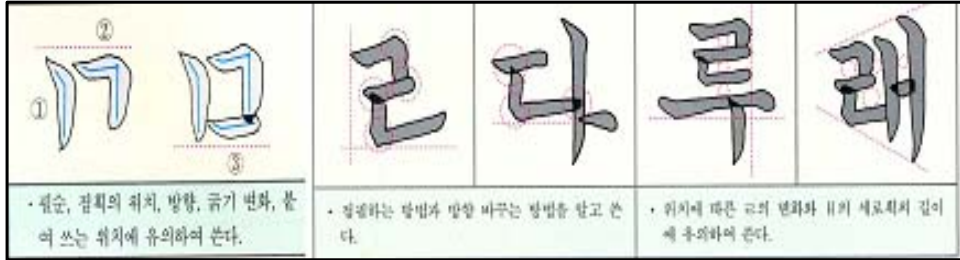
<그림 II-13> 판본체와 궁체의 분석



자료 : 제주도교육과학연구원(2003), 특기·적성 지도자료 서예(초급·중급), p.78

- 위치에 따른 ‘ㄹ’의 변화 알아보기
- ‘ㄷ’와 ‘ㅈ’ 앞의 ‘ㄹ’이 어떻게 다른지 발견하고, 모음에 따라 자음이 변화한다는 것을 알고 쓰게 한다.

<그림 II-14> 판본체와 궁체의 비교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2007), 초등학교 미술6, p82.

- 모음에서의 빼침점과 수평점 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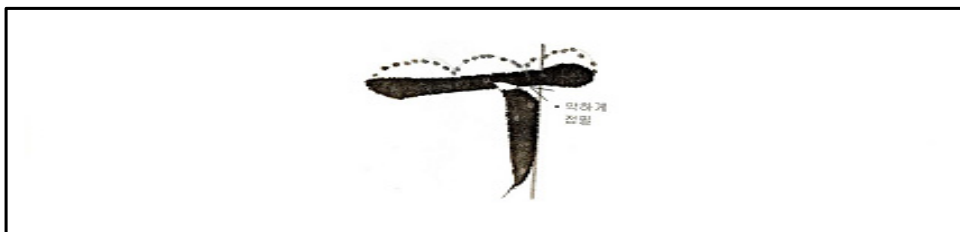
<그림 II-15> 모음에서의 빼침점과 수평점



자료 : 제주도교육과학연구원(2003), 특기·적성 지도자료 서예(초급·중급), p87

- ‘ㅈ’에서의 세로획 위치 알아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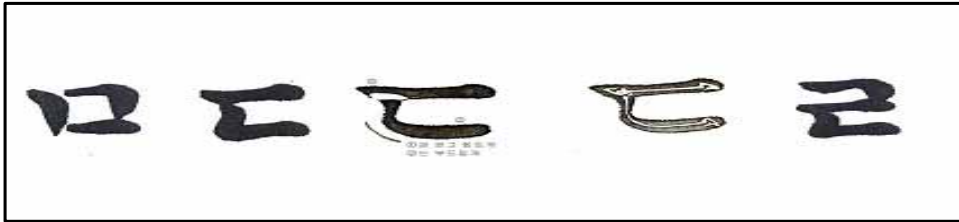
<그림 II-16> ‘ㅈ’에서의 세로획의 위치



자료 : 제주도교육과학연구원(2003), 특기·적성 지도자료 서예(초급·중급), p88

- ‘ㄱ’, ‘ㄷ’, ‘ㄹ’에서 꺾은 획의 필법과 접필 방법을 알아보기

<그림 II-17> ‘ㄱ’, ‘ㄷ’, ‘ㄹ’의 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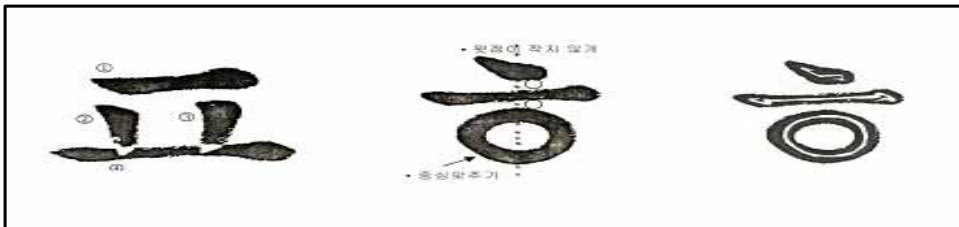
자료 : 제주도교육과학연구원(2003), 특기·적성 지도자료 서예(초급·중급), p.88

- ‘ㄱ’에서 세로획의 길이 변화 알아보기
- 자음과 모음의 결합 방법을 알아보기
- 글자의 모양을 알고 서체 쓰기

#### 다. 궁체 4자(‘파란 하늘’) 쓰기

- ‘교’과‘흥’의 쓰는 법 알아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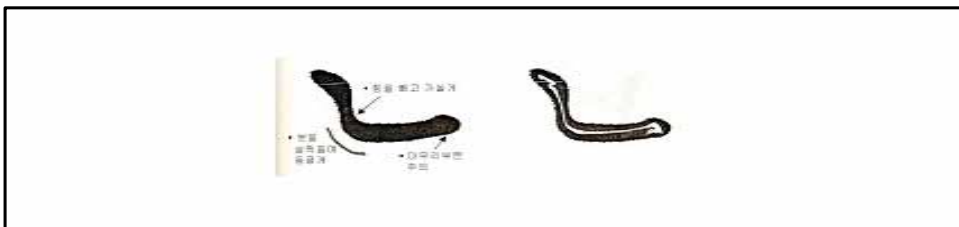
<그림 II-18> ‘교’과 ‘흥’ 쓰기



자료 : 제주도교육과학연구원(2003), 특기·적성 지도자료 서예(초급·중급), p.88

- ‘ㄴ’의 모양과 쓰는 방법

<그림 II-19> ‘ㄴ’ 쓰기



자료 : 제주도교육과학연구원(2003), 특기·적성 지도자료 서예(초급·중급), p.88

<그림 II-20> 자형과 획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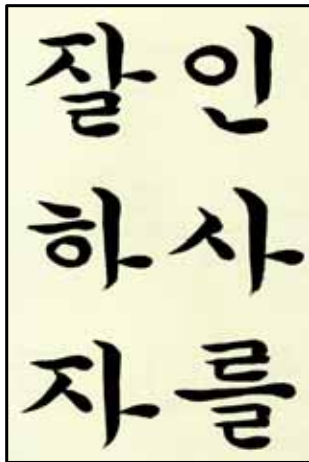
• 가로획과 세로획의 방향, 길이를 알고 쓴다.	• 정획의 방향, 간격, 중심을 알고 쓴다.	• 정획의 간격과 ㄴ, ㄹ의 변화를 알고 쓴다.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2007), 초등학교미술6, p

- ‘표’와 ‘린’에서 자음과 모음은 접필한다.
- ‘늘’에서 초성과 받침은 너비를 맞춘다.
- 배자 방법을 확인하기
- 각 글자의 첫 획의 위치를 잘 살펴 쓴다.
- 이름은 서제보다 작게 쓴다.

라. 궁체 6자(‘인사를 잘하자’) 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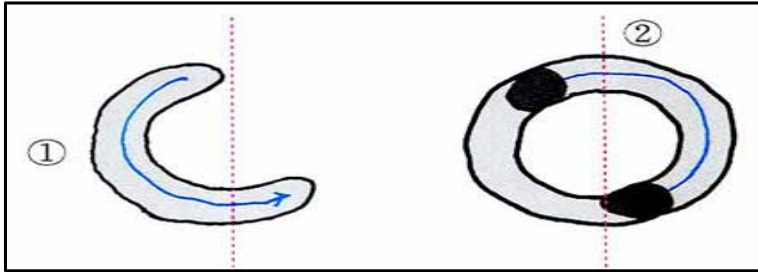
<그림 II-21> ‘인사를 잘하자’



- 화선지 접는 방법(6자, 8절) 알고 접기
- ‘를’에서 초성 ‘ㄹ’과 받침 ‘ㄹ’의 필법 차이 알아본다.
- 받침이 없는 글자는 모음의 세로획은 길게 쓰며, 자음도 다소 길쭉한 모양이다. (‘잘’과 ‘자’비교)
- ‘ㅎ’은 점, 가로획, ‘ㅇ’의 간격이 너무 붙지 않아야 한다.
- 자음과 모음의 간격, 받침의 크기에 유의하여 쓴다.
- 배자 방법에 따른 이름 쓰는 위치, 크기를 유의하여 쓴다.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2007)  
초등학교 미술6, p20

<그림 II-22> 'ㅇ' 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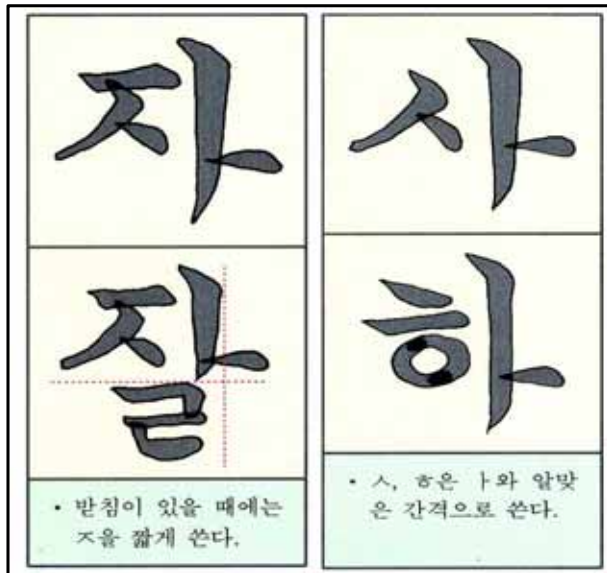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2007), 초등학교 미술5, p.39

<그림 II-23> 'ㅈ', 'ㅊ' 쓰기



자료 : 제주도교육과학연구원(2003),특기·적성 지도자료 서예(초급·중급), p.

<그림 II-24> 자음과 모음의 변화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2007), 초등학교미술6, p.

### Ⅲ. 연구의 기초 조사 및 분석

#### 1. 학생의 실태 조사

가. 서예 학습에 대한 흥미 조사

<표Ⅲ-1> 좋아하는 교과

설 문 내 용	교 과	빈 도	비율(%)	순 위
여러 교과 중에서 가장 흥미 있게 공부하는 교과는 어느 것입니까?	① 도덕	1	1.2	8
	② 국어	2	2.4	7
	③ 수학	7	8.3	4
	④ 사회	5	5.95	5
	⑤ 과학	11	13.1	2
	⑥ 체육	34	40.5	1
	⑦ 음악	4	4.8	6
	⑧ 미술	10	11.9	3
	⑨ 영어	5	5.95	5
	⑩ 실과	5	5.95	5
	계	84	100	

교과 선호도에서 미술과는 11.9%로 3위를 차지하고 있고 미술과의 영역 중 좋아하는 영역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서 1.2%로 가장 선호도가 낮았다.

<표Ⅲ-2> 좋아하는 미술과 영역

미술 교과에서 어느 영역이 가장 흥미 있습니까?	① 그리기	16	19.1	3
	② 찰흙으로 만들기	22	26.2	2
	③ 꾸미기와 만들기	40	47.6	1
	④ 서예	1	1.2	5
	⑤ 미술 감상	5	5.95	4
	계	84	100	

<표Ⅲ-3> 서예 수업에 대한 호감도

미술 교과 중 서예수업이 어떻 다고 느끼니까?	① 매우 재미있고 좋아한다.	2	2.4
	② 재미있고 좋아한다.	11	13.1
	③ 보통이다.	43	51.2
	④ 좋아하지 않고 재미없다.	28	33.3
	계	84	100

서예 수업에 대한 반응으로 보통이거나(51.2%) 좋아하지 않고 재미없다(33.3%)라고 응답하여 아주 소수의 학생만이 서예에 대한 흥미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Ⅲ-4> 서예를 좋아하는 이유

서예를 좋아한다면 그 이유 는 무엇입니까?	① 소질이나 취미가 있기 때문에	4	4.8
	② 마음이 차분해지기 때문에	17	20.2
	③ 글씨를 잘 쓴다는 칭찬을 들어서	4	4.8
	④ 우리 고유의 전통 문화이기 때문에	28	33.3
	⑤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이므로	2	2.4
	무응답	39	46.5
	계	84	100

<표Ⅲ-5>서예를 싫어하는 이유

좋아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소질이나 취미가 없어서	15	17.86
	② 준비물이 복잡하고 귀찮아서	3	3.6
	③ 붓글씨 쓰기가 어려워서	17	20.2
	④ 뒤통리가 힘들고 먹물이 옷이나 손에 잘 묻어서	35	41.7
	⑤ 용구를 제대로 못 갖추어서	0	0
	무응답	14	
	계	84	100

서예를 좋아하지 않는 이유로는 ‘뒤통리가 힘들고 먹물이 옷이나 손에 잘 묻어서’라고 답한 학생이 41.7%에 달했다. 서예를 공부할 수 있는 기회



에 대한 질문에 대다수의 학생들이(92.9%) 학교 수업시간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하였으며 개별적인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은 2명에 불과하였다.

<표Ⅲ-6> 서예 학습의 좋은 점

서예 공부가 자신에게 어떤 점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성격이 차분해 진다.	13	15.5
	② 집중력에 도움이 된다.	32	38.1
	③ 글씨를 쓰는 데 도움이 된다.	26	30.95
	④ 기타	13	15.5
	계	84	100

서예공부가 주는 도움에 대해 성격이 차분해진다(15.5%), 집중력에 도움이 된다(38.1%), 글씨를 쓰는 데 도움이 된다.(30.9%)등을 들고 있다.

<표Ⅲ-7> 서예를 배울 수 있는 기회

서예를 공부할 수 있는 기회는 주로 언제입니까?	① 학교 수업 시간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78	92.9
	② 방과 후 교육활동이나 서예학원에 다닌다.	1	1.2
	③ 가정에서 가르침을 받고 한다.	1	1.2
	④ 방학을 이용해서 한다.	3	3.6
	⑤ 기타	1	1.2
	계	84	100

<표Ⅲ-8> 서예 작품 감상 기회와 경험

서예 작품을 감상할 기회는 언제입니까?	① 미술 시간에 교과서를 통해 감상한다.	56	66.7
	② 인터넷을 통해 감상해 본다.	2	2.4
	③ 서예 전시회에 가 보았다.	8	9.5
	④ 전혀 가보지 않는다.	18	21.4
	계	84	100
서예 전시회에 가 본 경험이 있습니까?	① 자주 가 본다.	2	2.9
	② 가끔 가 본다.	4	4.8
	③ 한 번 가 봤다.	18	21.4
	④ 전혀 가보지 않았다.	60	71.4
	계	84	100

<표Ⅲ-9> 서예 학습에서 어려운 점

서예 학습 시간 중 가장 어려웠던 점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①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서	2	2.4
	② 서예용구가 좋지 않아서	12	14.3
	③ 붓 잡는 법, 팔 움직임 등이 어려워서	23	27.4
	④ 생각대로 잘 되지 않아서	47	56
	계	84	100

<표Ⅲ-10> 바라는 서예 학습 방법

어떻게 하면 서예를 잘할 것 같습니까?	① 선생님이 시범을 보여주고 설명을 자세히 해 주면	19	22.6
	② 설명을 듣고 쉽게 익힐 수 있는 학습 자료를 만들어 주면	18	21.4
	③ 책을 보고 하면	2	2.4
	④ 시간을 많이 주면	12	14.3
	⑤ 혼자 자유롭게 쓰면	20	23.8
	⑥ 서예 전시회(체험학습) 관람 기회를 많이 제공해 주면	12	14.3
	⑦ 기타	1	1.19
계	84	100	

서예학습 방법에 대한 질문에 대해 교사의 시범과 자세한 설명(22.6%), 학습자료 (21.4%), 자유롭게 쓰기 (23.8%) 등을 선택했다.

<표Ⅲ-11> 서예 학습에 대한 자신감

서예 학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① 쉽고 아주 잘할 수 있다.	2	2.4
	② 좀 어려우나 잘할 수 있다.	12	14.3
	③ 보통이다.	23	27.4
	④ 어렵고 배우고 싶지 않다.	47	56
	계	84	100

서예 학습에 대한 자신감에 대해 보통이다 와 어렵고 배우고 싶지 않다는 응답이 83.4%이다.

나. 서예 용구 실태

<표Ⅲ-12> 붓의 품질 및 보관 상태

구분 \ 상태	양호		보통		불량	
	빈도	%	빈도	%	빈도	%
붓	13	15.5	34	40.5	37	44.0
보관 상태	8	9.5	42	50	34	40.5

먹과 서진, 벼루는 학교에 비치된 것을 사용하기에 붓에 대한 관리 상태만 점검해 본 결과, 보통 혹은 양호한 품질의 붓을 갖고 있는 학생이 56%, 품질이 좋지 못한 붓을 갖고 있는 학생이 44%로 붓의 상태가 좋지 못한 학생이 거의 반을 차지하고 있다.

붓의 관리 상태를 보면 양호함이 9.5%, 보통 50%, 불량 40.5%로 바르게 붓 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Ⅲ-13> 서예 용구의 중요성 인식 정도

서예 용구 품질과 서예 학습과 어떤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서예 용구가 좋으면 잘 써질 것이다.	28	33.3
	② 조금 잘 써질 것 같다.	21	25
	③ 그저 그럴 것이다.	24	28.6
	④ 서예 용구와는 상관이 없을 것이다.	11	13.1
	계	84	100

58.3%의 학생들이 서예 용구가 좋으면 잘 써질 것이란 응답을 하여 서예 용구의 품질이나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표Ⅲ-14> 서예 용구 관리에 대한 희망

서예 용구 관리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① 개인별로 집에 가지고 다니면 좋겠다.	9	10.7
	② 일정한 자리에 공동으로 관리하면 좋겠다.	9	10.7
	③ 자기 사물함에 넣어 보관하면 좋겠다.	24	28.6
	④ 용구에 따라서 공동 보관과 사물함 보관으로 했으면 좋겠다.	12	14.3
	⑤ 학교에서 모두 구입하여 사용하고 보관하면 좋겠다.	30	35.7
	계	84	100

용구의 보관이나 구비에 대한 질문에 학교에 모두 구비되기를 바라는 경우가 35.7%, 용구의 종류에 따라서 14.3%, 개인의 것으로 개인이 관리하기를 희망하는 경우가 39.3%, 개인의 것을 공동으로 관리하기가 10.7%로 용구를 갖고 다니거나 보관하는 것에 대해 부담스럽게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Ⅲ-15>용구 사용 방법 실태

구분 \ 상태	상		중		하		계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용구의 배열	34	40.5	28	33.3	22	26.2	84	100
글 쓰는 자세	19	22.6	29	34.5	36	42.9	84	100
붓 잡는 방법	15	17.9	33	39.3	36	42.9	84	100
팔의 자세	13	15.5	31	36.9	40	47.6	84	100

용구의 사용 방법과 자세에 대한 조사를 분석해 보면, 용구의 배열 방법은 대체로 잘 알고 있으나(73.8%) 글 쓰는 자세와 붓 잡는 방법, 팔의 자세 등은 바르게 익히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Ⅲ-16>서예 기초 학습 능력 실태

구분 \ 상태	상		중		하		계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판본체의 운필이나 자형에 대한 이해	34	40.5	33	39.3	17	20.2	84	100
궁체와 판본체의 특징을 이해하는 정도	43	51.2	26	31	15	17.9	84	100
궁체의 필법에 대한 이해 정도	17	20.2	41	48.8	26	31	84	100

서예 기초 학습 능력에 대한 조사에서 판본체와 궁체를 구별하거나 두 서체의 특징에 대해 이해하는 정도는 판본체의 운필이나 자형에 대한 이해도가 보통이거나 그 이상인 경우가 79.8%, 궁체와 판본체의 특징을 이해하는 정도가 82.2%로 작품을 보고 판본체와 궁체 작품을 가려내거나 각 서체의 특징과 느낌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이해 정도는 높으나 붓으로 직접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알 수 있는 궁체의 필법에 대한 이해 정도는 보통이거나 그 이하가 79.8%로 비교적 낮은 편이다.

이러한 설문 내용 분석결과로 볼 때, 6학년이라고 해서 3,4,5 학년 때의 서예 학습내용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고 여기기는 어려우며 오히려 서예용구 관리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불편했던 기억들이 더 많이 남아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공동으로 사용해도 관리상 별 문제가 없고 개인이 구입하거나 갖고 다니기에 거주장스러운 벼루, 문진, 먹, 연적, 깔개 등은 같은 규격과 품질의 것을 미술실에 구비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자기만의 것이 아닌 공동 물품에 대해 특히 소비재인 경우, 그 관리에 있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 붓은 공동으로 관리하면서 사용하는 것보다 관리 방법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시키고 각자가 개인의 붓을 관리하게 하는 것이 품질 유지에 더 효과적이다.

서예 학습에 대한 인식의 정도를 보면 서예 자체가 지닌 예술성보다는 부수적으로 지닌 장점을 서예학습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목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최근의 서예 학원을 통해 학습하는 내용도 초등학교의 경우 한글서예가 대다수였던 것과 달리 한문 서예를 배우는 학생의 수가 많아지고 있다. 이는 서예를 우리의 삶을 풍부하게 할 수 있는 예술 활동의 하나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붓글씨를 통해 한자 학습도 하고 산만한 태도를 고치거나 집중력이나 인내심을 길러 주겠다는 등의 부수적인 목적에 비중을 더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의 서예 학습에 대한 경향은 서예 대회에 참가하는 학생들의 선택에서도 관찰되는데 예를 들어 제주 지역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는 학생 서예 실기대회<sup>9)</sup>를 살펴보면, 불과 십여 년 전만 하더라도 한글날을 기념하기 위한 대회라 한글 작품만을 대상으로 하여 한문 작품의 경우 응모 자격을 주지 않았다. 그러나 금년의 대회만 하더라도 한문 분야 참가자 수가 한글 분야와 거의 비슷하였고 한문 서예를 수강하고 있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의 의견은 붓글씨를 쓰는 활동을 통해 학생에게 얻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점에 기왕이면 한문을 대상으로 익힌다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대답을 쉽게 들을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해외에서도 한글 자체의 아름다움과 시각적인 예술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한글 문양을 이용한 옷이나 가방, 신발 등도 등장하고 있다. 우리의 전통 예술과 한글을 접목시킨 한글 서예는 그 자체가 지닌 가치만으로도 학생들에

---

9) 제주도 서예교육연구회가 주관하는 제주학생서예실기대회로 1974년에 시작됨.

게 익혀 줄 필요가 있는 것이다. 민족 고유의 입맛이 어릴 때에 결정되듯이 예술에 대한 안목과 취향의 싹도 어린 시절의 경험이 매우 중요하다. 비록 짧으나마 학교 수업 시간만을 이용해서라도 학생들에게 서예에 대한 즐거운 체험을 하게 할 필요가 있다.

학생들이 서예 학습을 위해 별도의 시간을 내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미술교과 시간에 주어진 시간만이라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서체를 익히는 데 따른 부담을 덜어주면서 서체를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이해하기 쉽도록 학습 자료가 필요하다.

미술 교과서에 실려 있는 내용만으로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보충할 수 있는 교사의 시범이나 설명 자료 등이 필요하다.

선행 연구물의 내용을 살펴보면 교사들이나 학생들에게 많이 선호되는 것으로는 껌도나 체본, 교사들의 시범 등을 볼 수 있는 자료 등임을 알 수 있다. 최근에는 인터넷 자료도 많이 활용하려 하고 있지만 널리 알려지거나 보급되어 있는 자료는 그리 많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교과서에 나와 있는 서체를 중심으로 체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연습지 자료와 교사의 시범을 보여 줄 수 있는 실물 화상기, 제주도 교육과학연구원에서 만든 ‘특기·적성 교육 지도 자료 서예’의 동영상 자료를 활용하여 학생들이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아울러 서예와 관련된 부담감을 덜어주고 흥미를 높여 줄 수 있는 몇 가지 활동을 곁들여 지도하여 지도하기 전과 후 학생들의 반응을 조사하여 보고자 한다. 따라서 연구를 위한 실천과제를 ‘교과서에 주어진 서체의 효율적인 지도 방법을 구안 적용한다.’와 ‘서예에 대한 흥미와 표현 욕구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표현 활동을 마련하여 실천한다.’ 두 가지로 정하였다.

## 2. 대상 및 기간

- 1) 대상 : 제주시 초등학교 6학년 남 43명, 여 41명 계 84명
- 2) 기간 : 2007. 04. 01. - 2007. 12. 31.
- 3) 학습 시간의 운영 - 정규 미술 시간에 배정된 서예 영역 지도 시간 6시간
- 4) 실천 절차

### <표Ⅲ-17> 실천절차

단계	절 차	추진 내용 및 방법	기 간
계획	구체적 실천 계획 수립	관련 문헌 탐색 교육과정의 서예 영역 및 선행연구 분석	2006.12.01. - 2007.03.31.
실행	프로그램 실행	계획에 따른 프로그램 도입 다양한 적용 방법 탐색 및 실천	2007.04.01. - 2007.11.31.
평가	실천 결과 분석	현장 속에서 실적물 검토 계획에 의한 결과 분석	2007.12.01. - 2007.12.31.
정리	실천 결과 정리 및 작성	실천 결과 정리 작성	2008.01.01. - 2007.01.15.
제출	발표 및 제출	논문 발표 및 수정 보완 논문 제출	2007.10.21. - 2008.01.18.

## 3. 실천 과제

(실천과제 1)

교과서에 주어진 서예의 효율적인 지도 방법을 구안 적용한다.

(실천과제 2)

서예에 대한 흥미와 표현 욕구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표현 활동을 마련하여 실천한다.

## 4. 실천 계획

<표Ⅲ-18> 실천계획

영역	실천 주제	실천 방법	시기	기대되는 효과
1. 서제의 효과적 인지도 방법 구안 적용	지도 계획 수립	교과서 서제의 분석, 지도 계획 수립	3월	학습 과제를 알고 학습에 임할 수 있다. 단계적인 학습으로 주어진 시간 안에 서제를 익혀 작품을 쓸 수 있다.
	서예 학습지 제작 활용	서제의 임시 자료 제작 활용	연중	필법을 정확하게 익혀 바르게 쓸 수 있다. 운필, 접필, 결구, 자형 등을 스스로 익힐 수 있다.
	자형판 제작, 활용	서제의 자형판 제작 활용	연중	필법을 정확하게 익혀 바르게 쓸 수 있다. 운필, 접필, 결구, 자형 등을 스스로 익힐 수 있다
	동영상 자료 활용	서제 쓰기 동영상 자료 활용	연중	필법과 바른 자세 등을 쉽게 익힐 수 있다. 스스로 비교하여 틀린 방법을 고칠 수 있다.
	물로 쓰기	물만 적신 붓으로 쓰기	연중	물에 적신 붓으로 쓰기를 통해 먹물에 대한 부담감을 줄여 주면서 붓에 친숙하게 할 수 있다.
	서예교수 학습과정 안 구안, 적용	서예교수 학습 과정안 구안, 적용	연중	학습 과정 중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
	서예 학습 환경 조성	미술실에 서예용구 갖추기	연중	서예용구를 갖고 다니는 번거로움을 해결할 수 있다.
2. 다양한 표현 활동	낙관도장 만들어 쓰기	찰흙, 지우개 등을 이용하여 낙관 새기기	4단원 다색 판화	작품의 완성도를 높여주고 자신의 작품에 대해 자부심을 갖게 할 수 있다.
	수묵화 그리기	주제를 정하여 자유롭게 나타내기	특활	자연스러운 운필법을 익히고 미적 성취감을 높일 수 있다.
	민화 따라 그리기	민화를 보고 따라 그리거나 베껴 그려보기	특활	조상들의 일상이 나타난 작품을 통해 먹물의 농담과 다양한 선을 익힐 수 있고 붓 사용에 대한 자신감을 기를 수 있다.
	편지쓰기	붓펜으로 편지 쓰기	특활	한지 소재의 편지지에 감사의 편지 쓰기 (어버이날, 스승의 날) 서간문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서예 활동 경험 기회를 준다.



## IV. 연구의 실제

### 1. 효율적인 지도 방법 구안 적용

#### 1) 지도 계획 수립

##### (1) 실천 내용 및 방법

주어진 6차시의 지도 계획을 세우고 서예 교수 학습 과정안에 맞추어 지도한다. 지도 단계는 다음과 같은 순서와 유의점을 지키며 지도한다.

첫째, 글씨 쓰기에 앞서 붓 잡는 법과 팔의 자세를 확인하고 교정한다.

둘째, 서제를 충분히 분석하고 관찰한다.

셋째, 교사의 시범이나 동영상 등을 통해 붓의 움직임, 호흡을 관찰하고 익힌다.

넷째, 일제히 입서한 후 개별 입서한다.

다섯째, 서제를 낙관과 함께 입서한다.(본을 보면서 입서하기)

여섯째, 서제 청서하기(화선지 접기, 먹물의 농도 맞추기, 낙관도 함께 지도한다.)

일곱째, 청서한 것은 모두 제출하게 하여 끝까지 정성들여 성실하게 쓰도록 한다.

#### <표IV-1> 차시별 지도 계획

차시	제재	중점 지도 요소	활동내용	학습자료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예용구 사용법</li> <li>궁체 정자의 기본 점과 획의 필법(기본 점과 가로 획, 세로 획)</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예용구 사용법 확인하기</li> <li>궁체의 기본 점획 익히기 (기본 점과 5가 지, 모음 一 丨 ㄱ ㅋ ㅌ 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판본체와 궁체의 차이점(용필과 자형) 알아보기</li> <li>붓글씨 쓰는 바른 자세를 확인하기</li> <li>궁체 기본 점과 획의 모양 알아보기</li> <li>- 붓대는 방법, 점획의 굵기 변화, 방향 등</li> <li>궁체 기본 획(가로획, 세로획) 쓰기</li> </ul>	참고작품 (판본체와 궁체 자료, 점필 패도, 궁체 모음자 음 변화표) 기본 점획 학습지 기본 점획 연습지 식물 화상기 8절 화선지

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체에 나오는 자음 익히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ㅎ의 변화 익히기</li> <li>• 받침 ㄴ, ㄹ의 변화 익히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붓글씨 쓰는 바른 자세를 확인하기</li> <li>•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ㅎ의 변화 알아보기</li> <li>• 받침 ㄴ, ㄹ의 변화 알아보기</li> <li>• 낙관 연습하기</li> </ul>	<p>참고작품 학습지 연습지 실물 화상기 8절 화선지</p>
3/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궁체로 ‘머루다래’ 쓰기(4자 세로 2줄로 쓰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받침 ㄴ, ㄹ의 변화 익히기</li> <li>• 8절 화선지에 궁체로 ‘머루다래’, 쓰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붓글씨 쓰는 바른 자세를 확인하기</li> <li>• 위치에 따른 ‘ㄹ’의 변화 알아보기</li> <li>• ‘ㄷ’에서의 세로획 위치 알아보기</li> <li>• ‘ㅁ’, ‘ㄷ’, ‘ㄹ’에서 꺾은 획의 필법과 접필 방법을 알아보기</li> <li>• ‘ㅈ’에서 세로획의 길이 변화 알아보기</li> <li>• 자음과 모음의 결합 방법을 알아보기</li> <li>• 낙관 연습하기</li> <li>• 궁체 ‘머루다래’ 쓰기</li> </ul>	<p>참고작품 학습지 연습지 실물 화상기 8절 화선지</p>
4/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궁체로 ‘파란하늘’ 쓰기 (4자 세로 2줄로 쓰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ㅍ, ㅎ, ㄴ, ㄹ의 변화 익히기</li> <li>• 8절 화선지에 궁체로 ‘파란하늘’ 쓰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붓글씨 쓰는 바른 자세를 확인하기</li> <li>• ‘ㅍ’과 ‘ㅎ’의 쓰는 법 알아보기</li> <li>• 위치에 따른 ‘ㄴ’과 ‘ㄹ’의 변화 알아보기</li> <li>• ‘ㅍ’와 ‘ㄹ’에서 자음과 모음은 접필함.</li> <li>• ‘ㄴ’에서 초성과 받침은 너비를 맞춘.</li> <li>• 배자 방법을 확인하기</li> <li>• 낙관 연습하기</li> <li>• 궁체 ‘파란하늘’ 쓰기</li> </ul>	<p>참고작품 학습지 연습지 실물 화상기 8절 화선지</p>
5/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궁체로 ‘인사를 잘 하자’ 쓰기(6자 세로 2</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체의 날자 익히기</li> <li>• 화선지 접는 방법 익히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붓글씨 쓰는 바른 자세를 확인하기</li> <li>• 화선지 접는 방법(6자, 6절) 알고 접기</li> </ul>	<p>참고작품 학습지 연습지 실물 화상기</p>

	줄로 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사를 잘하자.’ 쓰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를’에서 초성 ‘ㄹ’과 받침‘ㄹ’의 필법 차이 알아보기</li> <li>• 받침이 없는 글자는 모음의 세로획은 길게 쓰며, 자음도 다소 길쭉한 모양임 (‘잘’과 ‘자’비교)</li> <li>• ‘ㅎ’은 점, 가로획, ‘ㅇ’의 간격이 너무 붙지 않아야 함</li> <li>• 낙관 쓰는 방법 확인하기</li> <li>• 자음과 모음의 간격, 받침의 크기에 유의하여 씀</li> <li>• 배자 방법에 따른 이름 쓰는 위치, 크기를 유의하여 씀</li> <li>• 궁체 ‘인사를 잘하자’ 쓰기</li> </ul>	<p>접는 선이 그려진 화선지 6절 화선지</p>
6/6	작품 감상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로의 작품을 감상하면서 의견을 교환하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상 관점 알아보기</li> <li>• 서로의 작품을 보며 좋은 점, 고쳐야 할 점 살펴보기</li> <li>• 작품의 보관 요령 알아보기</li> <li>• 서예 활동에 대한 느낌 이야기하기</li> </ul>	<p>참고작품 학습지 연습지 실물 화상기 설문지</p>

## (2) 실천 결과

- 단계별·개별 지도를 통해 성취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학습에 대한 흥미를 높일 수 있었다.
- 기본 획을 익히고 필법을 자세히 살피고 자형을 익히는 활동을 통해 자신감을 가지고 임하게 되었다.

## 2) 서예 학습지 제작 활용

### (1) 실천 내용 및 방법

- 교과서의 서체를 기본으로 하여 궁체의 기본획과 점을 연습할 수 있는 서예 학습지를 제작 활용한다. (농서, 골서, 임서 학습지)
- 획의 운필 방법, 접필 법 등 자세한 설명을 곁들인다.

- 작품의 형식에 따른 낙관의 위치와 낙관의 내용을 지도한다.
- 궁체의 기본획과 점을 익힐 수 있는 임서자료를 제작하여 활용한다.
- 자음과 모음의 변화 지도를 위한 임서자료를 제작하여 활용한다.

#### (2) 실천 결과

- 학생들이 학습지를 이용하여 스스로 보고 익힐 수 있었다.
- 자신이 쓴 글과 비교 분석을 할 수 있었다.
- 첨삭 지도를 통해 잘못 된 부분을 고치기가 쉬웠다.
- 필법에 대한 두려움을 덜고 정확하게 익힐 수 있었다.
- 자형을 고려하여 배자하고 균형미를 살려 쓸 수 있었다.

#### 3) 자형 판 제작, 활용

- 갱지에 자형이 그려진 학습지와 OHP 필름으로 만든 글자 모형으로 글자의 모양을 이해하고 익히는데 활용할 수 있었다.

#### (1) 실천 내용 및 방법

- 자형의 틀이 그려진 종이를 놓고 쓰게 한다.
- OHP 필름에 본을 인쇄한 후 잘라내어 손으로 만져보며 획의 변화를 살펴 볼 수 있게 하였다.

#### (2) 실천 결과

- 자형을 확실하고 쉽게 익히는 데 도움이 되었다.
- 눈으로 보면서 모양을 익히는 것보다 손으로 획의 변화를 따라 가면서 실제로 만져 보는 활동을 통해 획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 4) 동영상 자료 활용

#### (1) 실천 내용 및 방법

- 교사의 시범을 직접 보면서 익히게 하였다.
- 시범 동영상을 통해 필요할 때마다 볼 수 있게 하여 붓의 움직임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게 하였다.(제주도교육과학연구원에서 제작한 동영상을 부분 발췌 활용함.)

#### (2) 실천 결과

- 자형이나 필법을 비교적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다.
- 운필시의 바른 자세를 보고 따라 함으로써 자세를 익히는 데 도움이 되었다.

#### 5) 물로 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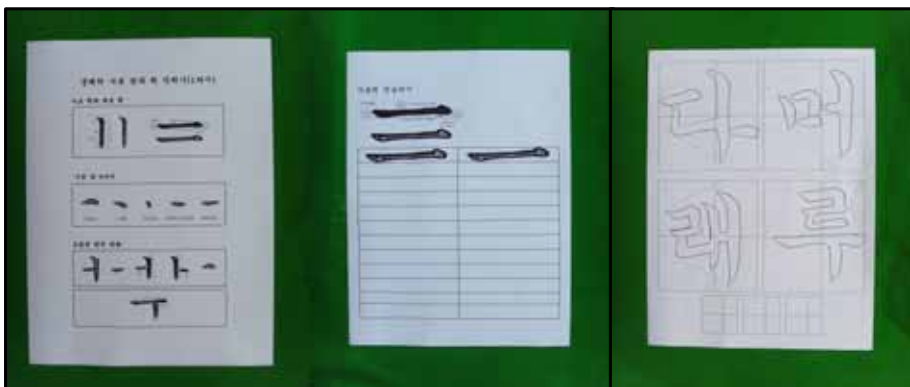
##### (1) 실천 내용 및 방법

- 화선지 아래 본을 깔아 놓고 그 위에 물에 적신 붓으로 글을 써보는 활동을 하게 하였다.
- 집에서 혼자서도 쉽게 연습할 수 있게 과제로 제시하여 붓의 느낌을 익숙하게 하고 자형을 익힐 수 있게 하였다.

##### (2) 실천 결과

- 물로 쓴다는 것이 먹물에 대한 부담을 덜어 줄 수 있었다.
- 물에 의해 반쳐 놓은 본의 글자 모양을 더욱 선명하게 볼 수 있었다.
- 붓에 대한 감각 익히기와 자형에 대한 학습과 훈련이 되어 붓 다루기에 좀 더 능숙하고 자신 있는 태도를 보였다.
- 서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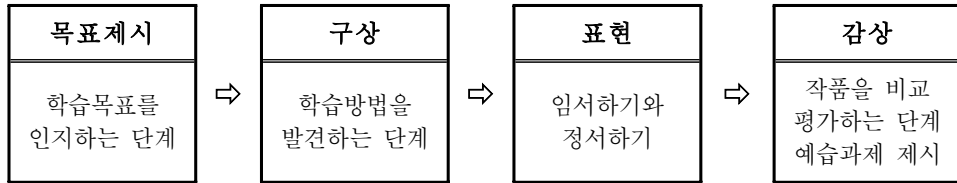
<그림Ⅳ-1> 학습지 및 연습지



6) 서예 교수 학습 과정안 구안, 적용

서예 교수-학습 지도 모형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학습 과정을 설계하고 작성, 활용하였다.

(1) 학습 활동 과정 설계



단계	교수 · 학습 과정	유의점
목표제시	학습목표인지	목표 달성을 위한 지도 (동기유발)
구상	방법 발견	책의 글씨를 보고 기법 알기
표현	임서하기 정서하기	한 글자를 여러 번 쓰게 하여 운필력을 기른다.
감상	작품 비교평가 예습과제 제시	작품을 책과 친구의 작품들로 비교시켜 평가한다. 예습과제

(2) 교수 · 학습과정안

<표IV-2> 교수 · 학습과정안 예시

단원	6. 붓글씨로 나타내기	차시 및 시간	1/6(40분)	적용 수업모형	서예중심
학습목표	· 궁체의 기본 점과 획을 쓸 수 있다.				
수업 전 활동	· 한글 서체의 종류 알아보기 · 궁체에 대해 알아보기				

학습 단계	학습과정	교수 · 학습활동	시간	자료(▶) 및 유의점(☞)
도입	준비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기유발 자료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사한 과제를 통해 한글 서체의 종류와 궁체에 대해 발표하기</li> </ul> </li> </ul>	5'	▶프리젠테이션 자료
목표 제시 구상	학습 문제 인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습 문제 확인 궁체의 기본 점과 획을 써보자.</li> <li>■ 학습 활동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 점, 가로, 세로획의 필법 알아보기</li> <li>• 운필법 알아보기</li> <li>• 시범 보며 임시하기</li> <li>• 감상하기</li> </ul> </li> </ul>	3'	▶실물화상기, TP자료(궁체의 기본 획과 점)  ▶화선지, 먹, 서진, 벼루, 연적, 붓, 종이, 깔개
	방법 발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표현 방법 구상 (자형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 행, 수필에서 획의 변화</li> <li>• 가로획(一)과 세로획(丨)의 운필법</li> <li>• ‘ㄴ’과 ‘ㄹ’의 구조 외형 살피기</li> <li>• 여러 가지 점의 운필법 (수평점, 사점, 윗점, 수직점, 삐침점)</li> </ul> </li> </ul>	24'	☞집필자세는 수시로 교정해 준다. (붓 잡는 법, 팔의 자세 확인)
표현	임서하기, 정서하기 적용 · 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범 보며 임시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로선과 세로선의 반복 연습</li> <li>- 기본 점의 반복 연습</li> </ul> </li> <li>■ 학습 결과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작품을 견본과 비교해 자형, 간격, 점필을 살펴본다.</li> <li>• 작품 상호 평가</li> <li>- 친구의 작품과 비교해 보기</li> <li>• 용구 정리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붓 빨기, 벼루 닦기, 붓 말아두기, 쓴 종이 정리하기,</li> <li>남은 먹물 사용한 화선지에 적서 깨끗이 정리하기</li> </ul> </li> </ul> </li> <li>■ 예습 과제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시 학습내용 확인하기(궁체로 ‘머루 다래’ 쓰기)</li> <li>- ‘ㄹ’, ‘ㄷ’, ‘ㄷ’의 붓 사용법 알아오기</li> </ul> </li> </ul>	5'	☞일제 호흡식 지도 방법 ☞용구 사용법은 매시간 지도한다.
감상		예습과제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습 과제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시 학습내용 확인하기(궁체로 ‘머루 다래’ 쓰기)</li> <li>- ‘ㄹ’, ‘ㄷ’, ‘ㄷ’의 붓 사용법 알아오기</li> </ul> </li> </ul>	3'

평가	궁체의 기본 점과 획을 바르게 쓸 수 있는가?
수업 후 활동	○ 한글 서체의 종류 알아보기

### (3) 실천 결과

- 체계적인 지도를 펴고 학생들에게 개별적인 지도와 침삭 지도를 통해 잘못을 고쳐 주는 데 효과적이었다.
- 학생들이 학습 과정과 과제를 이해하고 스스로 서사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다.

## 7) 서예 학습 환경 조성

### (1) 실천 내용 및 방법

- 미술실에 벼루와 문진, 먹, 깔개, 연적, 연습지등 필요한 도구와 재료를 준비하고 학생들은 붓만 가져오게 하여 용구를 준비하여 오는 데 따른 부담을 줄여 주었다.
- 교실과 미술실의 게시관에 본 단원에서 익혀야 할 자형 자료와 판본체와 궁체의 특징을 비교할 수 있는 자료, 접필의 위치와 상태 변화를 나타내는 궤도, 궁체에서 모음에 따른 자음의 변화를 나타내는 표 및 학생들의 작품을 게시하여 자주 살펴볼 수 있게 하고 관심을 끌도록 하였다.

### (2) 실천 결과

- 학생들은 붓만 가져오게 되어 서예 학습 준비에 따른 부담감이 덜어졌다.
- 게시된 자료를 통해 수시로 자신의 글을 고쳐나갈 수 있어 서사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 학생들은 게시된 자신의 작품을 통하여 자부심과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 선의의 경쟁을 유발할 수 있어 학습력을 높여줄 수 있었다.

## 2. 다양한 표현 활동 전개

서예는 특성상 반복적인 연습에 의해 서사력을 향상시켜야 하지만 주어진 시간은 짧고 교육과정 운영 이외의 시간에 따로 시간을 더 마련하여 지도하기는 여러 가지 학교 여건 상 거의 불가능하였다. 3학년 때부터 미술과 학습 내용 중 서예영역을 접해 보기는 했어도 꾸준한 연습이 받쳐 주어야 익힐 수 있는 기존의 방법으로는 제대로 익혀지지 않고 학생들 역시 여러 가지 이유로 귀찮고 부담스럽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 붓과 먹물, 서예



용구와 친해지기 위한 활동으로 수묵화와 민화 그리기, 낙관을 만들어 자기가 쓴 작품에 직접 찍어 보기 활동 등을 하게 하였다.

## 1) 낙관도장 만들어 쓰기

### (1) 실천 내용 및 방법

- 다색 관화를 해 보는 시간을 할애하여 직사각형 모양의 고무지우개에 조각칼을 이용하여 낙관을 새기게 하거나 찰흙을 직사각형 모양으로 만들어 약간 굳힌 후 조각칼로 새겨 넣는다.

### (2) 실천 결과

- 자신의 작품에 직접 만든 낙관을 찍는 활동을 통해 작품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되었다.
- 조상들의 서예 활동에 대해 이해하게 되었다.
- 낙관의 의미와 필요성에 대해 알게 되었다.

## 2) 수묵화와 민화 그리기

### (1) 실천 내용 및 방법

- 먹물과 붓을 이용하여 원하는 주제를 자유롭게 그려보게 한다.
- 부채에 민화를 옮겨 그려 보게 한다.
- 먹물의 농담과 선의 느낌을 경험하게 하였다.
- 서로의 작품 감상하기를 통해 느낀 점을 발표한다.

### (2) 실천 결과

- 선의 굵기나 거칠고 부드러운 선, 먹물의 진하기에 따른 느낌의 다양함을 이해하게 되었다.
- 의도한 것만이 아니라 의외의 효과를 경험할 수 있었으며 붓 다루기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줄 수 있었다.
- 용도에 따른 먹물의 진하기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 전통 문화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여 주고 다양하고 창의적인 표현 활동을 할 수 있었다.

### 3) 편지쓰기

#### (1) 실천 내용 및 방법

- 어버이날, 스승의 날에 감사편지를 한지 편지지에 붓펜으로 써보았다.
- 연말에 보내는 카드나 연하장을 직접 만들어 붓글씨로 내용을 써 보았다.

#### (2) 실천 결과

- 조상들의 생활을 맛보게 할 수 있었고 서예가 일상생활에 쓰이는 실용성 있는 활동임을 일깨울 수 있었다.
- 붓글씨에 대하여 멋스러움과 성실함과 정성스러움이 담겨있음을 느끼게 할 수 있었다.

<그림 IV-2> 민화그리기



<그림 IV-3> 수묵화 그리기



## V. 결과 분석

### 1. 검증 내용 및 방법

#### 1) 흥미 태도면

<표 V-1> 흥미 태도면

검증내용	검증방법	평가 도구	평가 시기
서예에 대한 흥미, 자신감	설문조사를 통한 전후 비교	설문지	2007년 4월 초 - 11월 초
필법, 자세와 태도의 변화	관찰 및 수행평가를 통한 전후 비교	관찰 및 수행평가지	2007년 10월 초 - 10월 말

#### 2) 궁체의 서사 능력면

<표 V-2> 궁체의 서사 능력면

검증내용	검증방법	평가 도구	평가 시기
운필 능력 평가	체크리스트를 이용한 전후 비교	관찰 체크리스트	2007년 10월 초 - 10월 말
작품 평가	실기평가	자작 평가 관점	2007년 10월 말
감상 능력 평가	서로의 작품 감상을 통한 분석능력평가	학생작품, 참고작품 감상학습지	2007년 10월 말

### 2. 검증 결과 분석

#### 1) 흥미 태도면

학생들의 서예에 대한 흥미조사는 지도 전과 후에 학생의 서예에 대한 인식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표 V-3> 서예 학습에 대한 흥미

N=84

설문내용	항목	인원수			
		4월	%	11월	%
서예 학습에 대한 흥미	① 매우 재미있고 좋아한다.	2	2.4	14	16.7
	② 재미있고 좋아한다.	11	13.1	20	23.8
	③ 보통이다.	43	51.2	39	46.4
	④ 좋아하지 않고 재미없다.	28	33.3	11	13.1

4월의 조사에서 ‘재미있고 좋아한다’는 15.5%였으나 11월의 조사에서 40.5%, ‘좋아하지 않고 재미없다’는 학생은 33.3%에서 13.1%로 줄어들어서 예 학습에 대한 흥미도가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표 V-4> 서예 학습에 대한 자신감

N=84

설문내용	항목	인원수			
		4월	%	11월	%
서예 학습에 대한 자신감	① 쉽고 아주 잘할 수 있다.	2	2.4	13	15.5
	② 조금 어려우나 잘할 수 있다.	12	14.3	21	25
	③ 보통이다.	23	27.4	39	46.4
	④ 어렵고 배우고 싶지 않다.	47	56	11	13.1

서예 학습에 대한 자신감이 16.7%에서 40.5%로 흥미도가 높아지면서 자신감이 생긴 것으로 해석된다.

2) 궁체의 서사 능력면

<표 V-5> 기본 태도 평가

N=84

평가 항목	평가관점	4월						11월					
		상	%	중	%	하	%	상	%	중	%	하	%
운필	충분으로 기필·행필·수필이 바른가?	5	5.9	12	14.3	67	79.8	18	21.4	65	77.4	11	13.1
완법	붓의 움직임이 바르고 현완법으로 바르게 쓰는가?	5	5.9	12	14.3	67	79.8	18	21.4	65	77.4	11	13.1
자세	손과 발의 위치, 몸과 책상 사이의 간격이 알맞고 몸의 자세가 바른가?	14	16.7	49	58.3	21	25	24	28.6	53	63.1	7	8.3
태도	차분한 마음가짐으로 정성껏 표현 하였는가?	9	10.7	38	45.2	37	44.1	18	21.5	49	58.3	17	20.2
용구	재료와 용구를 바르게 정리하였는가?	12	14.3	52	61.9	20	23.8	48	57.1	31	36.9	5	6

붓을 다루는 방법과 몸의 자세가 많이 좋아졌고 재료와 용구를 바르게 사용하며 학습 후 뒤처리도 바르게 하고 있다.

<표 V-6> 서예 작품 평가

N=84

평가관점	지도 전						지도 후					
	상		중		하		상		중		하	
	인 원 수	%	인 원 수	%	인 원 수	%	인 원 수	%	인 원 수	%	인 원 수	%
먹물의 농도	11	13.1	15	17.9	68	81	58	69.1	21	25	5	6
기본 점획의 필법	9	10.7	12	14.3	63	75	48	57.2	21	25	15	17.9
접필과 획의 변화	8	9.5	12	14.3	64	76.2	48	57.2	21	25	5	6
자형	9	10.7	11	13.1	20	23.9	50	60	29	34.5	5	6
서제와 낙관의 조화	7	8.3	12	14.3	65	77.4	51	60.7	27	32.1	6	7.1
배자 방법과 균형미	7	8.3	13	15.5	64	76.2	50	60	29	34.5	5	6

<표 V-7> 궁체의 이해도 평가

N=84

평가 관점	평점	평가 기준	인원수	%
(1) 궁체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상	3-4개의 항목을 해결한다.	55	65.4
(2) 궁체 필법의 특징을 말할 수 있다.	중	2개의 문항을 해결한다.	24	28.6
(3) 궁체의 글자 모양과 그 짜임새를 이해한다.	하	1가지 이하의 문항만 해결한다.	5	6
(4) 궁체 작품을 구분할 수 있다.	계		84	100

<표 V-7> 감상 능력의 평가

N=84

감상 관점	평점	평가 기준	인원수	%
(1) 먹물의 농도	상	6-8가지 정도의 관점으로 잘된 점을 말하고, 잘못된 점을 고칠 수 있다.	58	69.0
(2) 점의 위치와 모양				
(3) 접필의 상태	중	3-5가지 정도의 관점으로 잘된 점을 찾고, 잘못된 점을 고칠 수 있다.	14	16.7
(4) 모음에 따른 자음의 변화				
(5) 전체적인 균형미	하	2가지 이하의 관점으로 잘된 점을 찾아 말하고, 고칠 수 있다.	12	14.3
(6) 서제와 낙관의 조화				
(7) 궁체의 특징	계		84	100
(8) 작품의 상태				

## VI. 결론 및 제언

초등학교에서의 서예 교육은 3학년부터 서예 영역에 대한 지도가 도입된다. 3, 4학년에서는 판본체를 기본으로 서예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이끌고 자연스럽게 필법을 익혀 표현하게 되어있다. 5학년에서는 판본체와 궁체를 비교하면서 각각의 특징을 파악하고 각 체의 특징을 살려 글쓰기를 하게 되어있다. 6학년에서는 ‘궁체로 쓰기’에서 점획의 변화를 알고, 글자가 어울리게 정성껏 써 보는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예가 주는 교육적 효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각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으나 바빠 돌아가는 현대사회에 적응하려면 좀더 경쟁력 있는 분야를 익히는 것이 더 경제적이며 현명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대세이다. 여기에 서예 영역에 대한 교육 과정의 변화 내용을 감안해 볼 때 서예 학습을 전통적인 방법으로 지도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표현 영역에 있어 다양한 재료와 표현 방법의 하나로 어린이들이 체험하게 하는 학습 활동이라고 받아들여 지도해야 할 것이다.

서체수가 많이 줄어들어 궁체 3가지만 학습하도록 제시된 것은 학습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라고 보이지만 교육과정상에 주어진 시간만을 가지고 활동해 본 결과 주어진 서체를 충분히 습득케 하기는 여러 가지로 아쉬운 점이 많았다. 능숙하게 익히기에 중점을 두지 않고 체험해 보는 여러 가지 표현 활동 중의 하나로 여긴다면 별 무리 없다고 할 수도 있으나 교육과정에 주어진 6시간은 순수하게 서체를 익히고 감상하는 데에도 빠듯했으며 서예에 대한 관심이나 흥미를 돋워 주기 위한 활동은 특별활동이나 재량 시간, 미술과의 다른 영역을 지도하는 시간을 사용해야 했고 붓에 대한 감각이나 획의 변화 등을 익히기 위한 과제를 별도로 제시해야 했다.

교사가 지도에 어떻게 임하는가에 따라 학생들의 흥미나 관심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교사들도 서예에 대한 능력을 키우기 위한 연수 기회를 확대하고 익히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더 있어야 할 것이다. 서예의 특성상 이론적인 것만 받쳐 준다고 해서 서사력이 길러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붓이나 먹물 등에 대한 감각은 늘 가까이 하고 다루는 과정에서 몸에 배어들어야 하는 기능인데 일 년에 한 단원에 불과한 활동으로 익혔던 내용이 다음 학년이 되어서 다시 접할 때까지 배웠던 내용이 잠재되어 남아 있다가 그 단원을 접하는 순간 되살아나기를 기대할 수는 없는 일이다. 이런 서예가 갖는 특수성으로 인해 각 학년별 지도 내용은 체계적이고 단계가 잘 짜여져 있는 듯이 보이지만 서예 영역의 학습에 있어 맥이 끊길 수밖에 없어 학생들에게는 심히 부담스러운 영역인 것이다.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좋은 여러 가지 활동을 모두 펼치기에는 다양성을 추구하는 현대의 사회구조로 보아 어려운 실정이다. 사회가 다양해짐에 따라 개인의 취향과 필요가 각기 달라진 오늘 날에도 예전과 같이 모든 학생들에게 똑같은 교육 내용과 방법을 펼쳐야 한다는 주장은 무리가 있다. 서예가 갖고 있는 긍정적인 교육적 효과를 감안할 때 단순히 학교에서의 교육 과정상의 지도에 그칠 것이 아니라 방과 후 활동이나 학급별 특색활동 등을 이용해서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며, 토요일 휴업일 등 주말 시간을 이용한 취미활동으로 배울 수 있도록 권장하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미술 교과에서 서예 영역을 다룰 때에는 수묵화 그리기를 이용하여 부채에 그림을 그린다든지, 판화의 한 분야에서 낙관 도장 만들기를 실제 경험해 봄으로서 서예 영역에서 글씨 쓰기를 하거나 수묵화를 그렸을 때 자신의 낙관을 찍어 보기와 같은 활동을 통해서 붓으로 표현하는 활동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고 일상생활에 요긴하게 응용할 수 있는 분야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하겠다. 어버이날이나 스승의 날과 같은 행사에 즈음하여 편지글 쓰기를 붓을 이용해서 써 보게 하거나 크리스마스카드 만들기와 같은 활동을 하는 시간에 연하장을 만들어 보고, 옛 민화를 따라 그려보는 활동 등을 통해 붓을 가까이 하는 기회를 자주 제공해 주는 교육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서예의 실용적인 면, 일상에 이용될 수 있는 면을 일깨워 주는 것은 우리의 전통 문화에 대한 관심 뿐 아니라 서예 영역에 대한 관심까지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 참 고 문 헌

### <단행본>

- 박병천(1995), 임모 교수-학습의 효과적인 한 방안, 월간서예 4월호, 월간서예사.
- 김동출(1989), 고등학교서예, 고려서적주식회사.
- 박병천(1977), 서예교육, 한국교육출판사.
- 박병천(1990), 한글궁체의 연구, 일지사.
- 박병천(1985), 고등학교서예, 삼중당.
- 선주선(1989), 고등학교서예, 학연사.
- 선주선(1990), 서예, 대원사.
- 신두영(1989), 고등학교서예, 영재교육사.
- 이부영(2006), 초등미술과 서예교육, 맞춤형 연수-서예지도 연수자료
- 제주도교육과학연구원(2003), 특기·적성 교육 지도 자료 서예(초급·중급)
- 한국교육개발원(1985), 한글 서예 지도방법 개선을 위한 연구, 성문인쇄사.
- 현병찬(1993), 한글서예본, 신라출판사.
- 현인부(1995), 나선상 계급에 의한 궁체지도프로그램 적용이 서예의 서사력 신장에 미치는 영향, 특별활동분과 현장연구보고서.

### <논 문>

- 남순자(2003), “초등학교 서예학습의 단계적 지도 방법”, 석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동양학대학원 ,
- 박성안(2003), “초등학교에서의 서예지도 방법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 신용무(2000), “초등학교서예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부산교육대학원.
- 이계희(2004), “초등학교 서예학습의 효율적인 지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 안영순(2004), “초등미술교과 서예영역의 학습지도 방안에 관한 연구”, 석



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유종식(1999), “서사력 향상을 위한 궁체 쓰기 지도 방법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정도선(1999), “초등학교 서예 교육의 효율적인 지도 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윤양희(1973), 「인간의 연구」, 건국대학출집 16집에서 재인용, P.39.

<기타 문헌>

교육부(2001), 「초등학교 교사용지도서미술 3~6」, 대한교과서주식회사.

교육부(2006), 「초등학교 미술 3~6」, 대한교과서주식회사.

교육인적자원부(2006), 「초등학교 교사용 지도서 미술 6학년」, 대한교과서주식회사.

Researches of Effective Guidance on Calligraphy  
- Based on Sixth Grade Elementary School Students

(이귀환)

Major in Elementary Art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오재환)

Unlike other artistic forms, 'Penmanship representation', or calligraphy expression activity is a way to show harmony and balance, variations and balanced formative beauty based on the characters' formation of meaning. As calligraphy is performed with our traditional language, Korean, it can be seen as a desirable way to educate the sentiment reflecting ethnic sense of aesthetics which has been refined over the long history.

Beyond the extended understanding about arts through handwriting, calligraphy education can play a great job to educate the sentiment and encourage children to better understand and inherit our traditions. Despite these advantages, this has become less and less attractive to both students and teachers on the grounds of the influence of the new generation growing up with digital images, financial burdens of supplies, environmental factors, and the lack of manpower and time.

Based on these obstacles, this paper aims to look over related parts of the sixth grade students' art textbook, then boost interests and concerns about calligraphy, and find out proper ways for students to practice the characters in the textbook minimum.

To achieve that goal, documented records were used as a basic tool especially on the calligrapher-related part of the six grade students' textbook in the 7th curriculum, the concept of the court style penmanship in the same textbook, the guidance methods suggested by the book, and the reality analysis of calligraphy education toward the sixth grade students. In addition, calligraphy expression activities and effective guidance methods were designed and adapted in order to attract more attention to calligraphy education.

In terms of efficient teaching approaches, students are first taught how to write the strokes, dots, and basic units of the characters through analysis of the text contents. Then they actually practice the letters with help, in which proper teaching materials are produced for better support.

Next, in order to enhance interests toward penmanship education, various activities can be adapted like drawing pictures on folding fans with India ink, or carving Chinese characters of their own names on stamps. If teachers lead students to imprint the stamp on their own painting, students would get an impression that calligraphy can often be used in our daily routines. As a result, by showing them its practical usage, students feel more familiar with paintbrush-based expression activities.

Through all this, the more students are exposed to calligraphy and its practical uses, the more they can understand our traditional cultures and are attracted to the calligraphy areas.

# 부 록

<부록1>기초 조사 설문지

이 설문지는 여러분이 붓글씨로 나타내기를 학습할 때 선생님이 어떻게 도움을 주어야 하고 여러분이 어떻게 학습해야 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이니 편안한 마음으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 )학년 ( )반 이름( )

\* 가장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V표 하시오.

1. 여러 교과 중에서 가장 흥미 있게 공부하는 교과는 어느 것입니까?

- ①도덕 ( ) ②국어 ( ) ③수학 ( ) ④사회 ( ) ⑤과학 ( )  
⑥체육 ( ) ⑦음악 ( ) ⑧미술 ( ) ⑨영어 ( ) ⑩실과 ( )

2. 미술 교과에서 어느 영역이 가장 흥미 있습니까?

- ① 그리기 ( ) ② 찰흙으로 만들기 ( ) ③ 꾸미기와 만들기 ( )  
④ 서예 ( ) ⑤ 미술 감상 ( )

3. 미술 교과 중 서예수업이 어떻다고 느낍니까?

- ① 매우 재미있고 좋아한다.( )  
② 재미있고 좋아한다.( )  
③ 보통이다.( )  
④ 좋아하지 않고 재미없다.( )

4. 서예를 좋아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소질이나 취미가 있기 때문에( )  
②마음이 차분해지기 때문에 ( )  
③글씨를 잘 쓴다는 칭찬을 들어서 ( )  
④우리 고유의 전통 문화이기 때문에 ( )  
⑤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이므로( )

5. 좋아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소질이나 취미가 없어서( )
- ② 준비물이 복잡하고 귀찮아서( )
- ③ 붓글씨 쓰기가 어려워서( )
- ④ 뒤처리가 힘들고 먹물이 옷이나 손에 잘 묻어서( )
- ⑤ 용구를 제대로 못 갖추어서( )

6. 서예 학습 시간 중 가장 어려웠던 점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 ①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서( )
- ② 서예용구가 좋지 않아서( )
- ③ 붓 잡는 법, 팔 움직임 등이 어려워서( )
- ④ 생각대로 잘 되지 않아서( )

7. 어떻게 하면 서예를 잘 할 것 같습니까?

- ① 선생님이 시범을 보여주고 설명을 자세히 해 주면( )
- ② 설명을 듣고 쉽게 익힐 수 있는 학습 자료를 만들어 주면( )
- ③ 책을 보고 하면( )
- ④ 시간을 많이 주면( )
- ⑤ 혼자 자유롭게 쓰면( )
- ⑥ 서예 전시회(체험학습) 관람 기회를 제공해 주면.( )
- ⑦ 기타 ( )

8. 서예 용구 관리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 ① 개인별로 집에 가지고 다니면 좋겠다.( )
- ② 일정한 자리에 공동으로 관리하면 좋겠다.( )
- ③ 자기 사물함에 넣어 보관하면 좋겠다.( )
- ④ 용구에 따라서 공동 보관과 사물함 보관으로 했으면 좋겠다.( )
- ⑤ 학교에서 모두 구입하여 사용하고 보관하면 좋겠다.( )

9. 서예 용구 품질과 서예 학습과 어떤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서예 용구가 좋으면 잘 써질 것이다.( )
- ② 조금 잘 써질 것 같다.( )
- ③ 그저 그럴 것이다.( )
- ④ 서예 용구와는 상관이 없을 것이다.( )

10. 서예 작품을 감상할 기회는 언제입니까?

- ① 미술 시간에 교과서를 통해 감상한다.( )
- ② 인터넷을 통해 감상해 본다.( )
- ③ 서예 전시회에 가 보았다. ( )
- ④ 전혀 가보지 않는다.( )

11. 서예 전시회에 가 본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자주 가 본다.( )
- ② 가끔 가 본다.( )
- ③ 한 번 가 봤다. ( )
- ④ 전혀 가보지 않았다. ( )

12. 서예 공부가 자신에게 어떤 점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성격이 차분해 진다.( )
- ② 집중력에 도움이 된다.( )
- ③ 글씨를 쓰는 데 도움이 된다. ( )
- ④ 기타 ( )

13. 서예를 공부할 수 있는 기회는 주로 언제입니까?

- ① 학교 수업 시간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
- ② 방과 후 교육활동이나 서예학원에 다닌다. ( )
- ③ 가정에서 가르침을 받고 한다.( )

- ④ 방학을 이용해서 한다.( )
- ⑤ 기타 ( )

14. 서예를 배우고 싶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마음이 차분해 진다.( )
- ② 우리 고유의 전통 예술이기 때문이다.( )
- ③ 연필 글씨를 잘 못 쓰기 때문에 글씨 연습을 위해서이다.( )
- ④ 서예에 취미와 소질이 있다.( )
- ⑤ 부모님이 권유해서이다.( )
- ⑥ 기타( )

15. 서예를 배우고 싶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서예에 소질과 취미가 없어서 ( )
- ② 옷이나 손에 먹물이 묻어서( )
- ③ 준비물이 많아 귀찮아서( )
- ④ 가지고 있는 서예 용구가 좋지 않아서( )
- ⑤ 다른 공부가 많아서 ( )

16. 서예를 배운 경험은 어떠한가요?

- ① 학교에서 미술 시간에 배운 것이 전부다.( )
- ② 학교에서 클럽 활동 시간에 배웠다. ( )
- ③ 학교에서 특기 적성 시간에 배웠다.( )
- ④ 서예 학원에 다녔거나 다닌다.( )
- ⑤ 전혀 배운 경험이 없다.( )

17. 서예 학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 ① 쉽고 아주 잘할 수 있다.
- ② 좀 어려우나 잘할 수 있다.
- ③ 보통이다.
- ④ 어렵고 배우고 싶지 않다.



<부록2> 서예 영역 지도 후 결과 분석을 위한 설문지

이 설문지는 여러분이 붓글씨로 나타내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이니 편안한 마음으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1. 미술 교과 중 서예 공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 ① 매우 재미있고 좋아한다.( )
- ② 재미있고 좋아한다.( )
- ③ 보통이다.( )
- ④ 좋아하지 않고 재미없다.( )

2. 서예 공부에 대해 갖고 있는 자신감은 어느 정도인가요?

- ① 쉽고 아주 잘할 수 있다.( )
- ② 조금 어려우나 잘할 수 있다.( )
- ③ 보통이다.( )
- ④ 어렵고 배우고 싶지 않다.( )

3. 앞으로의 서예 공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 ① 개인적으로 더 배우고 싶다.( )
- ② 기회가 된다면 배우고 싶다.( )
- ③ 별로 관심이 없다.( )
- ④ 더 배우지 않을 것이다.( )

서예 수행 평가지

잘함 ☆ 보통 ○ 노력 요함△

번호	이름	기본 태도					서사력(작품 평가)						감상	비고
		운필	완범	자세	태도	용구	먹물 농도	점과 획의 필법	자음의 변화	자형	낙관 쓰기	배자와 균형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계	잘함													
	보통													
	노력 요함													